청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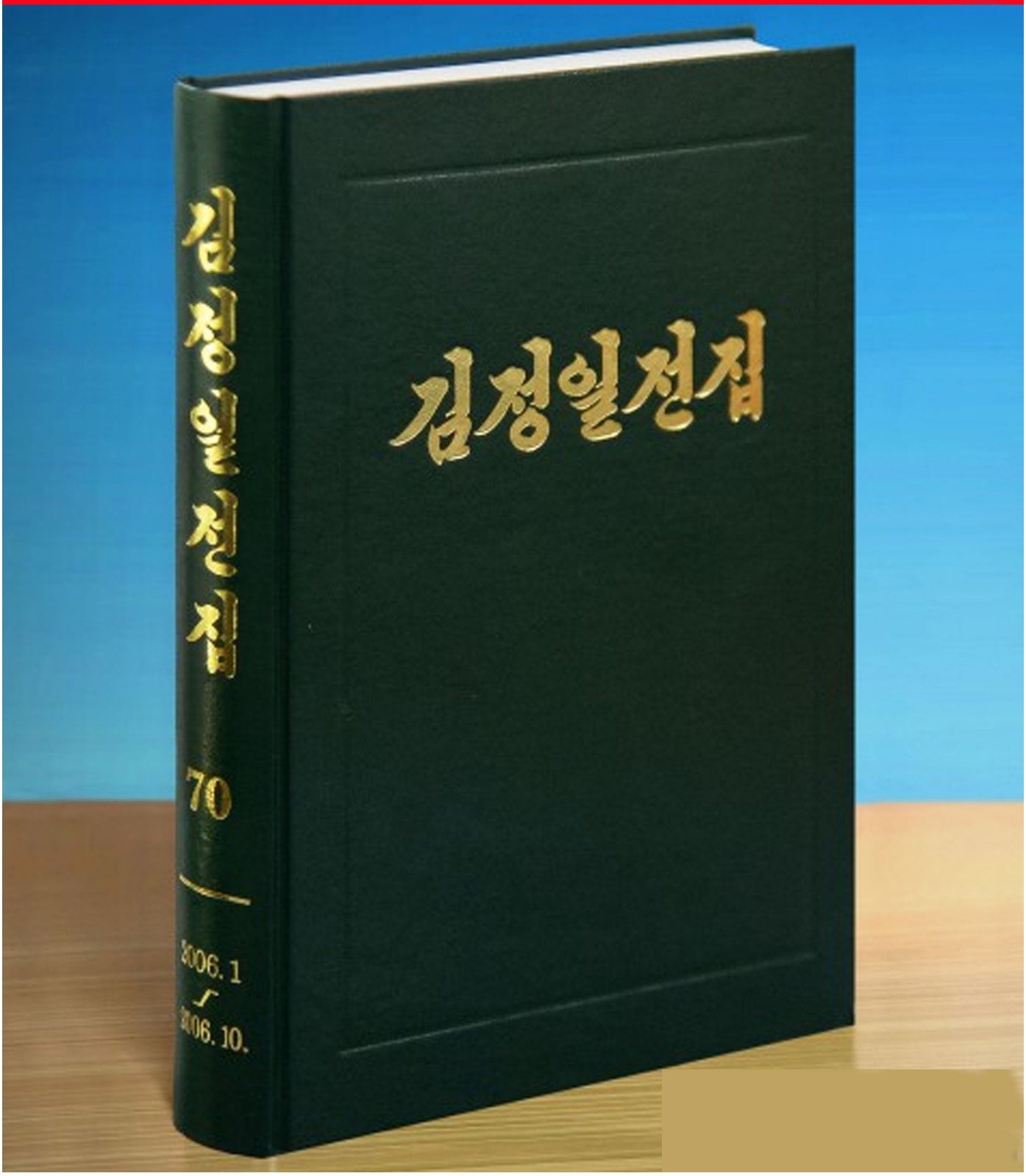
재중조선인총련합회
旅中朝鲜人总联合会

2026년 09

루계:30
http://www.lzchongsong.com



《김정일전집》 제70권 출판



차례 CONTENTS

혁명활동소식

01---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국경절경축행사에 초대된 로력혁신자, 공로자들을 만나시고 축하격려하시였다
02---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절기념 국기게양식 및 중앙선서모임 엄숙히 진행
03---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미싸일총국 새로운 중요전투무기체계 시험 진행
04---조선로동당 제3차 선전부문일군강습회 개강
05---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국방공업부문의 사업을 지도하시였다
06---제15차 전국교원대회 개막
08---구축함 《강건》호 취역기념식 성대히 진행

총련합회소식

11---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에 재중동포조직, 단체들이 꽃바구니를 보내였다
11---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78돐 재중조선인총련합회에서 경축행사 진행
18---심양총령사관 국경절연회 마련
19---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78돐을 맞으며
19---화목하고 단합된 지부
20---공화국창건 78돐을 맞으며
22---공화국창건 78돐을 경축합니다
23---우리 지부장
23---기부증서수여

조국소식

24---교육혁명의 불길속에 나라의 전반적교육토대 일층 강화
25---신심드높이 가을걷이에 떨쳐나섰다
28---논판양어정책의 정당성을 첫해부터 힘있게 과시 전국의 많은 농촌들이 메기수확으로 흥성이고있다
30---전국인공지능부문 과학기술발표회 및 연구토론회 진행
31---농업과학자들 염도가 높은 간석지논에서의 영양랭상모재배기술 도입에 성공
31---제20차 아시아경기대회에서
32---서부지구영예군인보양소 준공
33---《원산갈마료리축전-2026》 개막

동포소식

34---연변조선족자치주 창립 74주년 열렬히 축하!
35---연길조선족민속원 모래판우에 새겨진 씨름의 숨결

중국소식

38---9월 1일부터 실시되는 일련의 국가표준
39---중국 인구 총량 14.05억, 인구대국 기본면 변함없어
39---중국에서 활발히 진척되고있는 사회주의건설
40---주택도시농촌건설부: 4층 및 이상 주택 모두 승강기 설치해야

조중왕래

41---中国青年干部代表团访朝, 祭扫志愿军烈士陵园
42---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78돐에 즈음하여 중국인민대외우호협회와 중조우호협회가 연회 마련

국제소식

44---붉은군대 군관이며 국제주의전사인 야꼬브 노비첸꼬명칭 두만강자동차다리 준공식 진행
46---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성대표단 제13차 베이징향산연단에 참가
47---빚더미우에 올라앉은 우크라이나
47---국제무대에서 영향력을 높여나가는 상해협조기구
48---습근평 브릭스국가 지도자 제18차 회담 제1단계 회의 참석 및 중요연설 발표
51---뽈럭불가담운동창립 65돐기념 고위급회의 진행
51---군국주의부활에로 끊임없이 질주해온 일본의 행적

상식

53---애국명장 리순신
55---재침의 온상-야스구니진쟈
56---말소리흐름과 문장의 발음
57---캄보쟈
59---가을철 자주 먹어야 하는 4가지 《뿌리채소》!

련재소설

60--- 장편소설 림 꺽 정

앞표지:조국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78돐경축야회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국경절경축행사에 초대된 로력혁신자, 공로자들을 만나시고 축하격려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9월 9일 평양의사당에서 공화국창건 78돐 경축행사에 초대된 로력혁신자, 공로자들을 만나주시였다.

력사적인 당 제9차대회가 가리킨 새로운 전망목표수행의 돌파구를 열어제끼기 위한 관건적인 전진행정에 애국의 열정과 노력을 아낌없이 바쳐가는 보람과 영예를 안고 그처럼 고대하던 영광의 시각을 맞이한 참가자들은 오매에도 그리며 뵙고싶던 원수님을 우러러 열광의 환호를 터쳐올리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우리 조국을 더 위대하게 하고 우리 진보를 더 빠르게 하기 위한 투쟁의 선두에서 우리 당과 뜻과 의지를 함께 하며 진함없는 헌신으로 이룩한 로력적성과들을 안고 9월의 경축행사에 초대되여온 각 분야의 대표들을 따뜻이 축하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조국과 자기의 운명을 하나로 잇고 공화국의 승리와 영광에 바쳐가는 생을 가장 영예롭고 행복한 삶으로 여기는 애국자들의 대오가 나날이 늘어나고있는것은 우리 국가의 활기찬 발전과 당정책의 성공을 담보하는 제일비결로, 무궁무진한 힘으로 된다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국가발전의 전례없는 앙양기를 지속적인 상승기에로 이어놓기 위한 새 단계의 투쟁은 세상에서 제일 강인하고 제일 근실하며 제일 슬기로운 조선사람의 특질과 기개를 체현한 선구자들의 보다 적극적인 활약과 그에 일치분발하는 전인민적인 애국열의에 의해 강국건설사에 또 한페지의 거창한 변혁기를 아로새기게 될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전체 참가자들이 우리 국가의 발전과 공세적인 전진의 려정에서 더 열렬하고 더 혁신적이고 더 완강한 분투로써 시대의 당당한 주인공, 사회주의애국근로자의 긍지높은 명예를 힘있게 떨쳐가리라는 기대를 표명하시면서 뜻깊은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기념촬영이 끝나자 격정의 환호성이 경사스러운 9월의 하늘가에 메아리쳤다.

전체 참가자들은 **김정은**동지 따라 우리의 아름답고 성스러운 리상과 포부를 앞당겨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 전심전력해나갈 충천한 열의에 넘쳐있었다. (끝)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절기념 국기게양식 및 중앙선서모임 엄숙히 진행



조선로동당 제 9 차대회가 가리킨 혁명강령을 높이 받들고 거창한 변혁과 전진을 이룩해나가려는 전인민적인 애국열의가 비상히 승화되고있는 속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모든 공민들과 가정들은 국경절 78 돐을 맞이하였다.

영광스러운 우리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78 돐기념 국기게양식 및 중앙선서모임이 9 월 9 일 평양의사당에서 엄숙히 진행되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기념행사에 참석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들을 비롯한 당과 정부, 무력기관의 지도간부들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내각, 위원회, 성, 중앙기관 책임일군들, 조선인민군 지휘성원들, 평양시안의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들이 참가하였다.

기념의식장에는 조선인민군 명예위병대가 정렬해있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기를 게양하는 의식이 진행되였다.

조선인민군 명예위병들이 국기를 호위하여 의식장에 엄숙히 들어섰다.

전체 참가자들은 애국의 끓는 피로 력사의 험난한 초행을 과감히 헤치며 값비싼 승리를 전취하고 공화국의 존엄과 명예를 세기의 정상에 거연히 떠올린 영웅조선, 영웅인민의 자긍심과 강용한 기상이 비껴있는 성스러운 국기를 우러러 숭엄한 경의를 표시하였다. 영광찬란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기가 게양되였다.

우리 국가의 승승장구하는 위대한 력사를 휘황한 미래에로 줄기차게 빛내여가는 영광스럽고 보람찬 투쟁에서 힘과 지혜와 열정을 남김없이 바쳐갈 불같은 열망으로 장내는 세차게 끓어번졌다.

국가수반의 선창에 따라 참가자들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자주권과 조선인민의 리익을 옹호하고 국가와 인민을 위해 복무하는 책임있는 일원으로서 인민의

복리와 국가의 장성발전을 도모함에 무한히 성실하며 공화국헌법을 철저히 수호하고 법적의무를 엄격히 리행하며 사회주의 리념과 사회주의제도를 굳건히 고수하고 사랑하는 조국에 충성하여 그 위대함과 아름다움을 무궁토록 이어가는데 몸과 마음을 다 바쳐나갈것을 성스러운 국기앞에 엄숙히 선서하였다.

이어 **김정은**동지께서 국경절에 즈음하여 전체 인민에게 보내는 축하연설을 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국경절에 즈음하여 나라의 부강과 발전을 위해 줄기찬 창조와 진함없는 헌신, 책임적인 기여를 하고있는 전국의 근로자들과 인민군장병들 그리고 온 나라 가정들에 열렬한 축하와 감사의 인사를 보내시였다.

그리고 우리 공화국의 빛나는 려정을 기원하며 조국과 언제나 숨결과 마음을 함께 하고있는 해외교포조직들, 해외동포들에게도 따뜻한 축하의 인사를 보내시고 해외군사작전에 참전하고있는 우리 군대지휘관, 병사들에게도 특별한 감사와 숭고한 경의를 표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당과 정부가 모든 노력을 다하여 보다 무거운 책임을 걸머지고 보폭을 크게 하며 힘있는 전진을 이룩해나갈 의지를 피력하시면서 위대한 인민, 슬기로운 인민, 용감한 인민이 가는 앞길에는 반드시 승리와 영광만이 있을것이라고 확언하시고 전체 인민들과 이 나라의 모든 가정들에 따스한 평안과 기쁨과 행복이 있기를 축원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 연설을 마치시자 우렁찬 《만세 !》의 환호성이 장내를 진감하며 터져올랐다.

전체 참가자들은 위대한 **김정은**동지의 독창적인 인민대중제일주의국가건설사상을 높이 받들고 우리 국가의 불멸할 영광과 우리식 사회주의의 승리를 위한 력사적성업의 전위에서 지칠줄 모르는 정열과 완강한 분투로 인민이 부여한 중대한 책무를 다해나갈 철석의 의지를 가다듬었다. (끝)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미싸일총국 새로운 중요전투무기체계시험 진행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미싸일총국은 9월 20일 무기체계기술고도화에서 중대한 의의를 가지는 신형무기의 시험을 성공적으로 진행하였다.

해당 시험은 주변국가들의 안전에 그 어떤 부정적영향도 주지 않았다.

이 신형전투무기체계시험은 국가방위로선을 관철하기 위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미싸일총국과 관하 국방과학연구소들의 정상적인 활동의 연장이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시험을 참관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이 시험은 의심할바없는 첨단국방기술력의 과시이며 무력현대화에서의 뚜렷한 갱신이라고 하시면서 말그대로 불가항력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이러한 기술의 획득은 국가의 전쟁대비태세에 있어서와 전망적인 무력발전에 있어서 중대한 의의를 가진다고 하시면서 군사기술적측면에서 이와 같은 갱신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설명없이도 적수들이 더 잘 알것이라고, 적들에게는 이 현실이 불치의 두통으로, 매우 혹독하고 불가피한 세례로 될것이라고 확언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오늘의 성과는 특별한 목적이 부여된 중요한 이 무기체계개발에 관여한 과학기술집단의 전문적인 력량과 그들이 기울인 헌신적인 노력에 의하여 이룩된 값비싼 결실이라고 하시면서 미싸일총국과 관하 국방과학연구소들, 제작집단에 사의를 표하시였다. (끝)

조선로동당 제 3 차 선전부문일군강습회 개강

력사적인 당 제 9 차대회가 제시한 혁명강령의 성공적실행을 철저히 담보하기 위하여 당의 사상과 리론, 전략적방침들을 전면적으로 심도있게 재인식, 재무장하는 전통적인 사업이 각 부문들에서 심화되고있는 속에 조선로동당 제 3 차 선전부문일군강습회가 9 월 18 일 수도 평양에서 개강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는 사상제일주의로 승승장구하는 우리 국가특유의 절대적우세와 정신도덕적우월성을 증폭시키며 전당의 선전일군들을 새로운 발전국면의 요구에 부응한 원숙한 자질과 풍모를 겸비한 유능한 정치활동가, 실력가형의 일군들로 더욱 철저히 준비시키기 위하여 우리 당력사에서 세번째로 되는 선전부문일군강습회를 조직하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신 **김정은**동지께서 강습회를 지도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 주석단에 나오시자 우리 조국을 존엄높은 정치사상강국으로 세계만방에 빛내여주시는 탁월한 정치전략가, 사상리론의 거장을 우러러 드리는 전체 참가자들의 최대의 경의가 우렁찬 《만세!》의 환호로 터져올랐다.

김정은동지께서는 당과 대중을 하나의 사상과 숨결로 이어주며 우리 당, 우리 제도의 제일가는 위력인 일심단결을 만반으로 다져나가는 성스러운 사업에 지혜와 열정을 다 바쳐나가고있는 전당의 선전부문 일군들에게 따뜻한 답례를 보내시였다.

주석단 1 렬에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들인 리일환동지, 주창일동지와 조선로동당 조선인민군위원회 비서 박영일동지 그리고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 1 부부장 최창학동지를 비롯한 당중앙위원회 선전선동부 책임일군들이, 2 렬에는 조선로동당 각급 도위원회 선전사업담당 비서들과 기타 련관부문의 지도간부들이 자리잡았다.

김정은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제 3 차 선전부문일군강습회 개강식에서 중요연설을 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당 제 9 차대회는 우리 혁명의 발전적단계와 시대적요구로부터 광범위한 방면에서의 사업방향과 그 도달목표들을 제시했으며 지금은 우리 투쟁의 령역과 모든 활동에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있는 때라고 하시면서 우리가 새로운 투쟁을 전개하고있는것은 모든 사업에서 그만큼 우리가 전진을 이룩했고 결과보다 높은 단계의 투쟁이 필요되기때문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연설에서 사상사업으로 사회발전을 선도하는것이 항상 중시해야 할 문제라는데 대하여 특별히 강조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우리당 사상사업력사에 또 하나의 뚜렷한 장을 새기는 획기적 전환의 리정표로 될 이번 강습회를 그 어느 부문의 대회나 강습회보다 중시하고 기대하는 당중앙위원회의 립장을 다시금 표명하시면서 조선로동당 제3차 선전부문 일군강습회 개강을 선언하시였다.

사상으로 개척되고 사상으로 승리해온 조선혁명의 고귀한 전통을 우리 위업의 백년대계의 주추로 억세게 다져나갈 의지를 피력하신 **김정은**동지의 혁명적립장에 만장은 열광의 환호와 박수갈채로 화답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가 주악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선전선동부 제1부부장인 최창학동지가 보고를 제기하였다.

리일환동지가 첫 강의에 출연하였다.

총비서동지의 뜨거운 격려와 기대를 무한한 격동속에 받아안은 전체 참가자들은 비등된 정치적자각과 열의속에 강습에 참가하고있다. (끝)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국방공업부문의 사업을 지도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9월 16일부터 18일까지 중요군수공업기업소들의 생산실태를 료해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 박정천동지와 군사위원 김정식동지,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포병국장 유창선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간부들인 리병철동지, 리일환동지, 김여정동지, 김재룡동지, 오영재동지, 국방과학연구부문의 책임일군들이 동행하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기업소별 생산실태를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당 제9차대회 결정을 높이 받들고 새년도 생산목표수행에 총궐기한 중요군수공업기업소들은 혁명적열의와 생산적앙양을 지속적으로 고조시키며 련일 실적을 올리고있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언제나 혁명열로 충만된 정열적이고 헌신적인 로력투쟁으로 우리 군수공업의 획기적인 장성과 보다 자립적이며 선진적인 발전을 믿음직하게 떠메고나가는 로동계급의 수고를 뜨겁게 격려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중요군수공업기업소들이 절실한 군사적의의를 가지는 가장 중요한 지표의 전투기술기재생산계획들을 책임적으로 어김없이 수행하고있는 결과 당중앙군사위원회가 시달한 방대한 계획들이 성과적으로 하나하나 집행되고있다고 커다란 만족을 표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중요군수공업기업소들이 우리 군대의 포병전투무력개편 및 현대화종합계획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당에서 포치한 생산능력확대사업들도 드팀없이 진척시키고있는데 대하여 평가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생산능력확대와 기술공정현대화를 계속 다그치며 공격 및 방어전투무기체계들의 인공지능화수준을 제고하고 포무기들의 장갑화, 자동화를 더 높은 단계에 올려세우는 문제, 생산조건과 환경을 훌륭히 개선할데 대한 문제를 비롯하여 기업소들의 생산과 관리운영에서 나서는 중요한 정책적과업들을 밝히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중요한 핵심공장들에서 근무하는 전체 일군들과 기술자, 로동계급이 기질적인 창조정신과 투쟁기풍을 계속 높이 발양하여 우리 무력의 급진적인 강화를 힘있게 추동하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끝)

제 15 차 전국교원대회 개막

조선로동당의 독창적인 교육중시사상과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국가를 세계적으로 교육이 제일 발전된 나라로 전변시키기 위한 교육혁명이 새로운 높은 단계에서 심화되고있는 력사적시기에 제 15 차 전국교원대회가 9 월 2 일 수도 평양에서 성대히 개막되였다.

후대육성, 인재육성사업을 혁명의 제일중대사로 내세우는 우리 당과 정부의 특별한 관심과 온 나라 인민의 크나큰 기대속에 소집된 이번 대회는 제 2 차 전반적 12 년제의무교육강령의 철저한 실행을 비롯하여 당 제 9 차대회가 교육부문앞에 제시한 웅대한 목표들을 빛나게

관철하는데서 필수적이며 책임적인 공정으로 된다.

대회에서는 제14차 전국교원대회이후 지난 7년간 당의 교육정책집행정형을 심도있게 분석총화하고 우리 교육의 새로운 질적발전을 추동하기 위한 현실적문제들을 토의하게 된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대회에 참석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 대회장에 나오시자 열광의 환호성이 장내를 진감하였다.

김정은동지께서 제15차 전국교원대회 개막에 즈음하여 뜻깊은 연설을 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교육사업이 어느 분야의 사업보다 뒤질수 없는, 뒤져서도 안되는 국가적인 제일중대사라는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사실이고 일관한 우리의 원칙이라고 하시면서 이번 대회를 특별히 중시하는 당중앙의 기대와 교원들에게 항상 표하고싶었던 깊은 존경의 인사를 직접 전할수 있게 된 기쁨을 피력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우리의 교육을 누구나 부러워하고 받고싶어하는 최고의 교육, 조국의 부강번영을 강력히 견인하는 세계일류급의 교육으로 되게 하려는 당의 리상과 의지, 국가와 혁명의 대계를 세우는 설계가, 건설자이며 교육혁명의 주체인 전체 교육자들에 대한 굳은 믿음을 다시금 피력하시고 본 대회의 성과를 확신하시면서 제15차 전국교원대회의 개회를 선언하시였다.

조국의 미래를 가꾸는 교원들을 애국자중의 애국자로 세상이 부럽도록 값높이 내세워주시며 대해같은 신임과 사랑을 안겨주시는 **김정은**동지에 대한 참가자들의 다함없는 흠모심과 고마움이 우렁찬 환호로 분출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가 주악되였다.

조선소년단축하단이 대회장에 입장하여 축하시를 랑송하였다.

시랑송이 끝나자 장내는 또다시 열광의 도가니로 화하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대회의 성과적진행에 대한 확신을 다시금 표명하시면서 전체 참가자들에게 뜨거운 격려를 보내시였다.

위대한 변혁시대 인재교육전선의 전초병, 직업적혁명가의 영예를 빛내여가는 교육자된 무한한 긍지가 대회장에 굽이쳤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 총리인 박태성동지가 보고를 하였다.

보고자는 조선로동당 제9차대회는 새 전망계획기간 교육사업의 목표를 모든 학생들을 혁명실천에 이바지하는 튼튼한 인재로 알차게 키우고 도시와 농촌간의 교육수준차이를 결정적으로 줄이며 나라의 전반적교육토대를 현대적으로 완비하는것으로 제시하였다고 하면서 그 실현을 위한 과업들을 언급하였다.

보고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세계적으로 교육을 제일 중시하고 교육이 제일 발전된 나라로 공인될수 있게 하려는 당중앙의 구상과 결심에 대하여 강조하면서 모두다 교육혁명의 직접적담당자, 인재교육전선의 전초병이라는 숭고한 자각과 애국적자세를 가지고 배가의 열정과 분투로 당 제9차대회가 제시한 교육발전목표를 기어이 달성함으로써 교육강국건설의 새로운 도약기를 힘차게 열어나아가자고 호소하였다.

보고에 이어 토론들이 진행되였다. 당중앙의 값높은 평가와 믿음을 받아안은 전체 참가자들의 정치적열의가 비등되는 속에 대회는 일정대로 진행되고있다. (끝)

구축함 《강건》호 취역기념식 성대히 진행



조선로동당의 탁월한 군사전략사상과 정력적인 령도에 의하여 주체적해군무력강화의 경이적인 변혁시대가 펼쳐지고있는 속에 우리 국가의 신성한 해상주권과 국익을 믿음직하게 수호하게 될 또 한척의 위력한 전투함선이 조선인민군 해군에 취역하였다.

우리 식의 해군전력강화를 위한 독창적인 개념들을 수용하여 그 어느 수역에서도 제시된 작전임무를 완벽하게 수행할수 있는 복합적인 전투능력을 갖춘 《최현》급구축함 2호함인 《강건》호의 취역은 부국강병의 강렬한 열망과 포부를 안고 완강히 추진하는 당중앙의 원양함대건설의지와 해군현대화에로의 멈춤없는 진보를 과시하는 의미깊은 계기로 된다.

구축함 《강건》호 취역기념식이 9월 6일 원산항에서 성대히 진행되였다.

우리 해군력발전의 어제와 오늘이 한눈에 안겨오는 항구는 강대한 해군을 갈망하던 인민의 세기적숙원을 당대의 현실로 펼쳐주시고 우리 해군에 필승의 생명력을 부어주시는 **김정은**동지에 대한 다함없는 고마움으로 설레이고있었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취역기념식에 참석하시였다.

국가수반을 영접하는 의식이 진행되였다.

김정은동지께서 조선인민군 해군의 영광의 군기와 명예위병대를 사열하시였다.

해군명예위병대의 분렬행진이 있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들을 비롯한 당과 정부의 간부들과 당중앙위원회 일군들, 성, 중앙기관 책임일군들, 국방성과 조선인민군 대련합부대 지휘관들, 해군장병들, 구축함 《강건》호 해병들, 전세대 해군장령들, 선박공업부문의 로동계급과 과학자, 기술자, 일군들, 원산시민들, 청년학생들이 참가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가 장중하게 주악되는 속에 성스러운 우리의 국기가 숭엄히 게양되였다.

신형구축함의 취역을 기념하는 예술공연이 진행되였다.

공연무대에는 신성한 조국의 바다를 지켜 무쌍한 영웅성과 용감성, 멸적의 용맹을 떨쳐온 공화국해군의 전투적행로와 충성의 항로에 빛나는 해병의 삶을 감명깊게 구가하는 곡목들과 애국주의주제의 찬가들이 올랐다.

조국수호의 항로에 영원한 삶의 좌표를 정하고 **김정은**동지 해군의 불멸할 명함과 승전사를 무궁토록 빛내이며 당과 조국이 준 신성한 사명에 변함없이 충실할 해군장병들의 높은 사상정신세계를 훌륭한 예술적화폭으로 펼쳐보인 공연은 뜻깊은 9월의 경사로움을 더해주었다.

이어 구축함취역식이 진행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인 조춘룡동지가 구축함《강건》호의 취역준비경과보고를 하였다.

선박공업상 김광일동지가 구축함《강건》호의 인도문건을 조선인민군 해군에 인계하였다.

김정은동지께서 뜻깊은 연설을 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지금으로부터 여든한해전 바로 이 9월에 수령님을 모신 항일혁명투사들의 대오가《개선》호를 타고 해방의 닻을 내렸던 항구에서 원양의 원대한 웅지를 안고 새세대구축함이 출항의 닻을 올리게 된 력사적감격에 대하여 피력하시면서 크지 않은《개선》호에 실려왔던 부국강병의 웅지가 오늘은 최신전함에 실려 바로 이 추억의 항구에서 멀리 원양에로 뻗치게 되였다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지금처럼 모든것이 어려운 속에서도 현재와 미래의 안전에 관한 책임적인 태도와 관점에서 력사와 현시대의 요구를 평가하고 우리 식의 계산법으로 용기있게 도전한것은 해양국의 립지에 맞게 강력한 해군을 건설하는 력사적대업을 절대로 후대들에게 넘기지 않으려는 세대의 자각과 사명감으로부터 출발한것이였다고 하시면서 구축함《강건》호는 우리의 경제, 국방, 과학기술력의 집합체이기 전에 자기의 권익을 수호하기 위한 조선의 자존심이고 의지이며 강인한 정신의 결정체라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 연설을 마치시자 전체 참가자들은 폭풍같은《만세!》의 함성을 터쳐올리며 당중앙의 억척불변한 국가주권수호의지와 강군건설방침을 가장 철저한 실천적성과로 받들어나갈 굳은 맹세를 표시하였다.

위임에 따라 구축함《강건》호를 조선인민군 해군에 취역시킬데 대한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명령서를 당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 박정천동지가 랑독하고 조선인민군 해군사령관 박광섭해군상장에게 전달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명령에 따라 구축함《강건》호는 조선인민군 해군 동해함대에 취역하여 우리 국가의 해상주권방위와 핵전쟁억제력으로서의 책임적인 사명을 수행하게 된다.

구축함해병들을 대표하여《강건》호 함장 최철진해군상좌가 결의발언을 하였다.

이어 참가자들의 열렬한 고무와 격려속에 구축함승조가 함대기와 군함기를 선두에 세우고 공화국해병의 영예드높이 함에 올랐다.

조선인민군 해군 구축함《강건》호에 해군기를 게양하는 의식이 진행되였다.

9발의 례포가 발사되는 가운데 함에는 해군기가 전체 참가자들의 축원과 전투적 경례를 받으며 엄숙히 게양되였다.

김정은동지께서 구축함에 오르시였다.

취역출항을 앞둔 함에 국가수반을 또다시 모시게 된 크나큰 영광을 안고 함장이 **김정은**동지를 맞이하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함수갑판에서 구축함 해병들을 만나시였다.

구축함의 전체 지휘관, 해병들은 추호의 변침도 모르는 신념의 조타를 억세게 틀어잡고 당중앙이 가리키는 침로따라 창파만리를 내달리며 공화국해군의 영예를 자

랑찬 승전기록으로 빛내여갈 엄숙한 결의를 다지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함에서 내리시여 행사에 참가한 전세대 해군지휘관들과 뜨겁게 상봉하시였다.

해군사령관은 구축함 《강건》호의 출항을 명령하였다.

함의 출항을 알리는 배고동소리가 울려퍼지고 축포와 고무풍선들이 날아오르는 속에 항만에 정박해있던 해군함선들이 일제히 축하신호기를 올렸다.

참가자들은 구축함해병들을 향해 손을 흔들어주며 가장 뜨겁고 열렬한 축하를 보내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구축함 《강건》호에 무적필승의 영예만이 깃들기를 기원하시며 전투적경례를 보내시였다.

이날 당과 정부의 간부들을 비롯한 참관자들은 함무장장비전시회장과 해군력사사진전람회장을 돌아보면서 불철주야로 이어지는 **김정은**동지의 정력적인 령도에 의하여 전례와 한계를 초월하여 가속되는 우리 해군의 비약적인 발전상을 가슴뿌듯이 체감하였다.

조선인민군 해군은 구축함의 취역을 기념하여 이날 연회를 마련하였다.

구축함 《강건》호의 취역은 **김정은**동지께서 이끄시는 현대적해군무력건설의 획기적인 진보와 발전을 뚜렷이 증명하였으며 력사적인 당 제9차대회가 제시한 웅대한 혁명강령의 성공적실행을 위하여 일심분투하고있는 전인민적총진군대오에 배가의 힘과 고무를 안겨주었다.

위대한 우리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강대성의 상징이시며 백전백승의 기치이신 강철의 령장 **김정은**동지를 높이 모시여 우리 해군의 앞길에는 언제나 승리와 영광의 항적만이 아로새겨질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에 재중동포조직, 단체들이 꽃바구니를 보내였다



만수대언덕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78돐에 즈음하여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재중조선경제인련합회, 재중조선인청년협회, 재중조선인녀성협회가 꽃바구니들을 보내였다.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동상에 8일 꽃바구니들이 진정되였다. (끝)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78돐 재중조선인총련합회에서 경축행사 진행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해외동포들에게 보내주신 강령적서한을 높이 받들고 사업하는 재중조선인총련합회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78돐에 즈음하여 다채로운 경축행사를 진행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78돐에 즈음하여 9월9일,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차상보부의장과 길림지구협회일군들이 길림육문중학교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님의 동상에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재중조선인녀성협회, 재중조선인총련합회 길림시지부, 재중조선인청년협회, 재중항일혁명투쟁연고자 황백하가족, 주해원세수출입무역유한공사 류홍, 연변북두무역유한공사 박광현, 길림성송화국제무역유한공사, 연변회리공업유한공사 우치리의 명의로 된 꽃바구니를 진정하고 인사를 드리였다.

이날 심양주재 조선총령사관 총령사동지, 길림육문중학교 교장동지가 함께 꽃바구니를 진정하고 인사를 드리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78돐에 즈음하여 9일 재중조선인총련합회 본부일군들과 지도원들, 경제인들이 심양주재 조선총령사관에 모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영상사진문헌에 재중조선인총련합회의 명의로 된 꽃바구니를 진정하고 삼가 인사를 드리였다.


최은복의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78돐에 즈음하여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최은복의장을 비롯한 본부일군들과 지도원들, 경제인련합회 김경수회장과 심양시 심연택지부장을 비롯한 심양시지부공민들이 본부회의장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78돐기념 재중조선인총련합회좌담회를 진행하였다. 좌담회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국가 주악으로 시작되였다.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최은복의장이 발언하였다.

그는 우리 재중동포들은 조국번영의 일대 전성기가 펼쳐지고있는 력사적인 시기에 영광스러운 우리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78돐에 즈음하여 우리 인민들과 해외동포들에게 잃었던 조국을 찾아주시고 천대와 멸시속에 헤매이던 우리 인민을 나라의 주인으로 내세워주신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과 **김정일**대원수님의 불멸의 건국업적을 가슴뜨겁게 되새겨보면서 위대한 대원수님들과 경애하는 원수님께 최대의 영광과 가장 뜨거운 감사의 인사를 삼가 드린다고 말하였다.

그는 우리 인민은 독립과 영예를 수호하고 부강번영하는 조국을 일떠세웠다고 긍지높이 말하면서 우리 공화국은 건국의 초창기부터 사회주의강국을 건설하는 전 력사적기간 제국주의침략세력과의 첨예한 대결속에서 류례없는 난관과 시련을 헤치며 승리와 영광의 한길로 전진하여왔다고 강조하면서 공화국의 78년의 위대한 력사가 찬연히 빛나고 사회주의 등대로 그 위용을 높이 떨치고있다고 피력하였다.

그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계시여 우리 조국의 앞날은 끝없이 밝고 창창하다며 모두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상과 령도를 충직하게 받들며 총련합회를 주체의 해외동포조직, 애국으로 단결되고 뭉쳐진 조직으로 더욱 튼튼히 꾸려나가자고 호소하였다.

총련합회선전국 권헌국장은 공화국의 창건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주체적건국로선의 빛나는 승리였으며 세계지도에서 빛을 잃었던 우리 나라를 자주독립국가로, 우리 인민을 국가와 사회의 참다운 주인으로 되게 한 력사적사변이였으며 경애하는 원수님의 위대한 혁명사상과 령도가 있기에 우리 조국에서는 거창한 창조와 기적이 끝없이 펼쳐지고 있다고 하면서 총련합회의 일군으로서 총련합회를 잘 받들고 조국을 위한 사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결의하였다.


권헌국장

심양시지부 류창환부지부장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공화국을 창건하신지 78년이라는 세월이 흘러왔다. 크지 않은 우리 조국이 핵무력완성을 실현한것은 위대한 장거이다. 나는 코로나때에 조국에 체류하면서 우리 조국은 인민의 나라라는 인상을 크게 받았다. 나는 해외공민의 긍지를 안고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하여 힘껏 노력하겠다고 결의하였다. 좌담회가 끝나고 계속하여 기록영화 《구축함 강건호 취역식》을 시청하였다.


류창환부지부장

조선로동당의 탁월한 군사적전략사상의 령도로 우리 국가의 신성한 해상주권과 국익을 믿음직하게 수호하게 될 구축함 《강건》호 취역식을 시청하면서 조선의 억센 힘과 기상이 만리대양으로 내뻗치는 해군전성기의 격동적인 새시대를 열어나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에 대한 흠모의 정이 회의장에 흘러넘쳤다. 경축행사참가자들은 조선해군의 비약적인 발전상을 가슴뿌듯이 체감하면서 조선공민의 긍지와 자부로 가슴 설레이였다.

계속하여 국경절 78돐 연출공연이 시작되였다.





《우리의 국기》로 막을 연 총련합회본부일군들과 지도원들의 합장, 중창, 혼성 2 중창, 독창과 무용들이 회의장분위기를 즐겁게 장식하였다. 이날 경축참가자들은 함께 식사를 하면서 노래와 춤으로 즐거운 국경절을 유쾌히 보내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78 돐에 즈음하여 9 월 7 일 목단강지구협회에서 경축모임을 진행하였다. 목단강시 공민들과 해림분회공민들, 녕안분회공민들, 가족들, 목단강어머니독보조 동포들 이 《중흥촌》 민족촌식당에 모여 국경절을 경축하였다.

모임참가자들은 수령찬가를 부르면서 수령님의 업적을 학습하고 수령님의 생애를 되새기였다. 모임참가자들은 정력을 들여 준비한 집체무용과 노래도 부르며 흥겨운 명절분위기속에서 풍성한 명절음식을 차려놓고 축배를 들며 공화국창건 78 돐을 경축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78 돐을 맞이하면서 재중조선인청년협회에서 화상회의를 진행하였다. 회의에서 김송미회장은 공화국창건 78 돐을 열렬히 축하하면서 현시기 조성된 국제정세상황에 맞게 모두가 조국의 정신으로 생활을 잘 해나가려면 학습을 생활화, 습성화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리봄순부회장이 《공화국창건과 더불어 길이 전할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국장도안의 래력을 이야기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78 돐을 맞이하면서 9 일 차상보부의장을 비롯한 연변지구협회 일군들은 본부의 류창환지도원과 함께 도문시 량수진에 모여 두만강너머 왕재산혁명사적지가 한눈에 바라보이는 강변에서 조국을 광복하신 **김일성**대원수님의 불멸의 업적을 되새기였다.

두만강너머 우뚝 솟은 왕재산대기념비를 우러르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영원히 살아계시는 수령님께서 재중조선인총련합회를 무어주시고 이끌어주시며 해외동포들에게 안겨주신 배려와 사랑에 가슴설레이면서 그리움으로 감격하였다. 그들은 끊어진 단교에서 일제의 만행을 규탄하면서 정든 조국방문의 날을 간절히 기원하였다.

연길시지부공민들이 7 일 공화국창건 78 돐을 맞으면서 모임을 가지였다. 모임에 참가한 공민들은 조선기록영화《영원토록 무궁번영할 인민의 나라》를 시청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78 돐을 맞이하면서 중남지구협회 베이징시지부공민들이 9 일 조선대사관에 모셔진 경애하는 대원수님들의 초상화에 꽃바구니를 증정하였다.

참가자들은 대사관에 전시된 도서작품들을 돌아보고 학습실에 모여 텔레비죤으로 조국의 소식들을 시청하였다. 이날 모임에 참가한 공민들은 점심식사를 하면서 국경절명절의 한때를 즐겁게 보내였다.



베이징시지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78 돐을 맞이하면서 단동시에 살고있는 조선공민들이 단동시조선대표부에 찾아가 수령님들의 초상화에 꽃바구니를 증정하였다.

공화국창건 78 돐을 경축하는 단동시 전체 조선공민들은 수령님들의 영상을 우러르며 민족의 존엄이 강대해지고 나라의 국력을 최상의 경지에 세워주신 우리 수령님들과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 삼가 고마움의 인사, 충성의 인사를 올리였다.



단동시지부

이번 활동모임에는 재중조선인총련합회 료녕지구협회 주계숙회장을 비롯한 단동시공민들. 재중조선경제인련합회 고영석부회장을 비롯한 회원들, 청년협회 리봄순부회장을 비롯한 회원들이 참가하였다.

단동시조선대표부 장경일령사동지가 공민들을 따뜻이 맞이해주고 함께 기념사진을 찍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78돐에 즈음하여 길림지구협회 장백현지부공민들이 공민활동실에 모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초상화에 꽃바구니를 진정하고 불멸의 혁명업적을 되새기면서 국경절을 즐겁게 경축하였다.



장백현지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78돐에 즈음하여 길림지구협회 집안시지부에서 경축모임을 가지였다.

매하구시지부장, 백산시부지부장, 통화시지부장이 경축모임에 참가하였다.



집안시지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78돐에 즈음하여 할빈시지부공민들이 경축모임을 가지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78돐에 즈음하여 상해시지부공민들이 경축모임을 가지였다.



상해시지부

심양총령사관 국경절연회 마련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78 돐에 즈음하여 심양총령사관에서 9 월 4 일 심양샹그릴라호텔에서 경축연회를 마련하였다.

연회에는 심양총령사관 마종수총령사동지를 비롯한 령사관일군들과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최은복의장이 참가하였고 료녕성인민대표대회부주임을 비롯한 동북 3 성의 간부동지들과 길림육문중학교 당서기 등 관계부문일군들이 초대되였으며 심양주재 로씨아총령사관 총령사도 참석하였다. 연회에서는 연설이 있었다.

우리나라 총령사동지는 공화국이 걸어온 78 년의 력사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김정일**동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탁월한 령도밑에 온갖 시련과 난관을 이겨내며 사회주의강국건설을 위해 힘차게 전진하여온 자랑찬 승리의 로정이라고 연설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세련된 령도밑에 우리 공화국은 앞으로도 발전과 번영의 신화적인 창조로, 정의의 보루, 평화수호의 성새로 누리에 더욱 찬연한 빛을 뿌리게 될것이라고 그는 확언하였다.

그는 조선로동당과 공화국정부는 앞으로도 습근평총서기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중국공산당의 령도밑에 새시대 중국특색의 사회주의위업과 국가주권과 안전, 발전리익을 수호하기 위한 중국인민의 투쟁을 변함없이 굳건히 지지성원할것이라고 지적하였다.

이어서 료녕성인민대표회의 부주임은 조선 당과 정부, 인민에게 열렬한 축하의 인사를 보낸다고 하면서 공화국창건후 조선인민은 독립자주적인 발전의 길에 들어섰으며 78 년간의 끊임없는 분투를 통해 사회주의위업을 줄기차게 전진시키고 국가의 면모를 일신시켰다고 피력하였다.

중조 두나라는 훌륭한 이웃, 훌륭한 벗, 훌륭한 동지로서 피로써 맺어진 친선관계는 대를 이어 영원히 퇴색하지 않을것이며 특히 료녕성과 조선 평안북도는 넓은 변경선을 가지고 있으며 상호간 경제, 무역, 교육, 관광 등 여러분야에서 여러가지 형식으로 긴밀한 래왕을 유지하면서 전통적인 중조친선협조관계가 새로운 단계에 올라서게 될것이라고 언급하였다. 연회는 줄곧 친선의 분위기속에서 진행되였다.



반향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78돐을 맞으며

재중조선인청년협회 회원 량리향



저는 평시 우리 국가 국장을 평범하게만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국가의 존엄과 자주권, 불패의 위력과 륭성번영의 상징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장!

근 80년전 위대한 수령님께서 륭성번영할 우리 조국의 래일을 내다보시며 손수 그려주신것입니다.

우리 나라의 국장은 그 어느 나라것과도 다른 완전히 새롭고 조선적인것으로 되여야한다고 가르쳐주시며 농업을 대표하는 벼이삭, 공업을 상징하는 수풍발전소에 이르기까지 하나하나 세심한 지도를 주신 우리의 국장은 오로지 인민을 행복의 요람속에 재우시고 불철주야 위민헌신의 길을 끝없이 걸으신 우리 수령님께서만이 구상하실수 있는것입니다. 인민을 위해서라면 그 어떤 격랑도 맞받아 뚫고 나아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계시여 위대한 수령님의 구상과 념원은 찬란한 현실로 더욱 활짝 꽃펴나 우리 국가의 존엄과 위용이 남김없이 과시되고있습니다. 세계곳곳이 전란에 휩싸여 류혈참극으로 물들어가는 현시기에도 부국강병건설의 나날들로 온세상에 빛을 뿌리고있는 조국의 오늘은 세계유일무이의 인민의 나라, 감히 그 누구도 건드릴수 없는 위대한 **김정은**조선입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손길아래 태여난 우리의 훌륭한 국장은 경애하는 원수님을 높이 모시여 앞으로도 우리 국가의 존엄의 상징으로 세세년년 길이 빛날것입니다.

저는 이 세상 제일 아름다운 우리 조국, 가장 위대한 우리 조국의 해외공민된 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끝없이 전진하는 조국의 번영과 부강발전에 애국의 마음으로 기여할것입니다.

화목하고 단합된 지부

편집부



재중조선인총련합회 료녕지구협회 단동시지부는 화목하고 단합된 조직이다.

이렇게 되는데는 동포들의 권익과 편의보장을 위한 지부의 활동을 떠나 생각할수 없다.

료녕지구협회 회장 겸 단동시지부장 주계숙을 비롯한 지부일군들은 동포들의

가정방문을 자주 진행하여 그들속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제때에 알아보고 성심을 다해 해결해나가고있다.

언제나 자기들의 곁으로 다가와 크고작은 애로들을 풀어주는 지부일군들에게 동포들은 마음속진정을 터놓고있으며 지부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고있다.

그런가 하면 지부에서는 4월 15일과 2월 16일을 비롯한 명절들에 이채로운 행사들과 모임들을 의의있게 조직하고있다.

조국을 방문한 동포들의 소감을 지부성원들에게 알려주고 잡지 《금수강산》을 비롯한 조국의 출판물들을 통해 동포들이 언제나 조국과 마음을 잇고 살도록 하고있다.

이러한 활동들은 지부를 화목하고 단합된 집단으로, 활력에 넘친 조직으로 되게 하는데서 긍정적작용을 하고있다.

단동시지부는 동포들의 가정방문을 자주 진행하고 지부성원들과 한자리에 모여앉아 정을 나누면서 지부의 단결을 강화하고 있다.

뿐만아니라 경축행사도 다채롭게 조직진행하는것으로하여 총련합회에서는 단동시지부에 모범지부표창을 수여하였다.





공화국창건 78돐을 맞으며

연변지구협회회장 김권



—왕재산대기념비를 바라보면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78돐을 맞이하면서 9일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차상보부의장를 비롯한 연변지구협회 일군들이 심양에서 살고있는 총련합회 류창환지도원과 함께 그리운 조국땅이 지척인 두만강을 찾았다.

우리는 연길시에서 차를 타고 왕재산혁명사적지가 한눈에 바라보이는 도문시 량수진으로 향하였다. 차창너머 논밭의 벼들이 가을바

람에 설레이고있다. 우리들의 마음도 설레이였다.
량수진에 도착하여 두만강변에 이르렀다.
두만강너머는 조국의 함경북도 온성군 왕재산리이다.
맑은 하늘아래 푸른 숲으로 우거진 청산을 배경으로 두만강가에 우뚝 서있는 왕재산대기념비가 한눈에 안겨온다.
이곳에는 왕재산혁명박물관, 두루봉혁명사적지가 있다.
우리는 조국땅이 지척인 두만강가에서 조선혁명의 앞길을 환히 밝혀주며 높이 솟은 횃불과 수령님을 따라 혈전만리를 헤쳐가는 항일유격대원들을 형상한 왕재산대기념비를 우러르며 항일유격투쟁에서 이룩하신 수령님의 업적을 회고하였다.
1933년 3월 11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지금 우리가 서있는 량수진(량수천자)을 거쳐 조국땅 온성지구에 진출하시여 왕재산에서 력사적인 온성지구 지하혁명조직책임자 및 정치공작원회의를 지도하시면서 항일무장투쟁을 국내에로 확대발전시킬데 대한 전략적방침을 제시하시였다.
회의는 조선혁명수행에서 주체를 튼튼히 세워나가며 무장투쟁을 국내에로 확대발전시키고 전반적조선혁명을 가일층 앙양시켜나가는데서 커다란 의의를 가졌다.
그후 온성지구는 국내의 반유격구로 창설되여 혁명적인 대중단체들이 조직되고 소왕청근거지에 필요한 물자들을 공급하면서 항일무장투쟁발전에 큰 공헌을 하였다.
항일무장투쟁시기 훈춘,연길, 화룡의 넓은 지역에 반유격구가 꾸려졌다. 연변땅에는 항일무장투쟁의 전적지와 사적지들이 많고 혁명력사기념비도 많은데 대부분 산과 마을들에 널려져있다.
수많은 조선사람들이 항일대전에 참가하여 고귀한 생명을 바쳤다. 중국의 이름난 시인 하경지는 연변땅을 돌아보고서 《산마다 진달래, 마을마다 렬사비》라는 이름난 즉흥시를 지었다.
강건너 우뚝 솟은 왕재산대기념비를 우러르면서 우리들은 피어린 항일투쟁으로 조국을 광복하고 공화국창건을 위하여 심혈을 기울리신 수령님에 대한 고마움과 흠모로 가슴이 북받쳐올랐다.
사적비를 그윽한 눈길로 바라보는 우리들은 수령님에 대한 그리움으로 저저마다 눈시울이 촉촉히 젖어들었다.
우리는 일본제국주의자들에 의하여 처참히 끊어져 버린 량수단교(凉水断桥)에 올랐다.
량수단교는 도문시 량수진과 조국의 온성군을 련결하는 다리인데 왜놈들이 중국동북의 위만주국통치를 강화하고 동북땅에서 략탈한 자원을 조선을 거쳐 일본으로 가져가기 위하여 1937년에 건설한 다리인데 《온성다리》라고 하였다.
1945년 8월에 일본침략자들이 쏘련군의 진격을 막으려고 폭파하여서 지금은 중국측에 75메터의 다리만이 남아있다.
현재는 애국주의 교육기지로, 길림성문물보호단위로 되였다. 끊어진 다리우에서 강건너 조국땅 온성군의 푸른 산발들과 푸른 논밭들, 왕재산대기념비가 환히 보인다.
항일무장투쟁시기 처절했던 그 광경이 눈앞에 선히 떠올라 치밀어오르는 분노에 치를 떨었다.
우리는 끊어진 단교를 목격하면서 일제의 만행을 규탄하였다.
단동에는 미제침략자들의 폭격으로 끊어진 사람들이 다 알고있는 압록강단교가 있다.
오늘 우리 조국은 강대하여졌다.

며칠전에 두만강하구에 우리 조국과 로씨야를 련결하는 다리가 준공되였고 압록강하구의 신의주와 단동을 련결하는 새 다리도 곧 개통한다고 한다.

우리는 무궁번영하는 조국의 희소식들을 이야기하면서 항일무장투쟁을 승리에로 이끄시고 미제를 때려부시고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하여 한평생을 다하시던 수령님께서 재중조선인총련합회를 무어주시고 이끌어주시며 해외동포들에게 안겨주신 배려와 사랑에 가슴설레이면서 그리움으로 감격하였다.

류창환지도원은 조국을 여러번 방문하면서도 여기 량수진은 처음 와본다고, 연변협회 일군들이 왕재산혁명사적지가 있는 온성땅을 볼수있게 한것에 대하여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우리 공민들이 근 백년이 지난 항일무장투쟁의 발자취가 깃들어있는 사적지와 전적지들을 답사하는것은 참으로 의의깊은 소행들이라고 찬탄하면서 본부에 가서 왕재산대기념비를 바라본 감상을 토로하겠다고 말하였다.

우리도 항일유격대들의 발자취가 스민 동북땅의 전적지들을 참관학습선전하는데 중시할것을 토의하였다.

우리는 그리운 조국방문의 잊지못할 이야기로 향수에 젖은 마음을 달래며 조국방문의 날을 간절히 기원하면서 조용히 량수진을 떠났다.

공화국창건 78 돐을 경축합니다

목단강지구협회 부회장 김영일



뜻깊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78 돐을 맞이하고있는 오늘 위대한 어머니 내 조국에 목단강지구협회 전체 공민들은 다함없는 축하의 인사를 삼가 드립니다.

위대한 주체사상으로 존엄높고 자주위업으로 긍지높게 걸어온 78 년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건하시고 위대한 장군님께서 이끌어주시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빛내여주신 영광스러운 력사입니다.

국경절을 맞이하는 이 시각 목단강지구협회 전체 공민들의 마음마음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품으로 끝없이 달려갑니다.

경애하는 원수님이 령도하시는 우리 조국땅우에는 인민의 꿈이 현실로 전환되고 인민이 리상으로 그려보던 사회주의문명개화의 새 세상이 펼쳐지고있습니다.

우리들의 가슴마다에는 경애하는 원수님을 높이 모시여 바라는 꿈과 리상이 실체로, 엄연하게 앞당겨지는 자랑찬 조국의 현실로 긍지와 자부심이 차넘치고있습니다.

경애하는 원수님이 령도하시는 강대한 우리 조국이 있기에 목단강지구협회 전체 공민들은 크나큰 민족적긍지와 자부를 안고 생활하고있습니다.

공화국창건 78 돐을 맞이하는 목단강지구협회 전체공민들은 끝없이 번영할 어머니조국을 축복하며 륭성번영하는 조국을 위하여 애국사업에 적극 떨쳐나려는 결의를 굳게 다집니다.

우리 지부장

계서시지부공민 림명순



목단강지구협회산하에는 계서시지부가 있습니다. 계서시지부장은 정명희동무입니다. 언제나 말보다 먼저 행동으로 지부공민들을 료해하고 도우며 오늘도 걷고 또 걸어가고있는 우리 계서시지부 정명희지부장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정명희지부장은 재중조선인총련합회의 많은 방조를 받고있던 최봉화공민이 사망되였다는 소식을 듣고 그 가족을 찾아가 조의를 하며 당지 해당기관을 찾아 필요되는 수속절차를 도와주었습니다.

정명희지부장은 특히 타지방에 가있는 공민들과 전화를 통해 료해하며 일년에 한번씩 확인증명을 검증받는 문제를 도와주고 영구신분증명을 새로 교체하는 문제로 4명의 공민들과 같이 이민관리소에 찾어가 일체 서류작성을 도와 수속을 하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의료보험카에 들어있는 금액으로 약국에서 약을 사는 문제로 두명의 공민을 데리고 의료보험국을 찾아가 2년간의 금액의 약을 약국에서 사도록 해결해주었습니다. 장기환자인 김룡천공민을 여러차례 문안하였고 90살인 신춘영의 문제로 4차에 걸쳐 집에 찾아가 그가 안착하여 생활하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오늘도 크고 작은 문제를 가리지않고 지부공민사업에 온힘을 다바쳐 일하고있는 우리 정명희지부장을 우리모두가 높이 칭찬하며 잘 받들어나아가겠습니다.

기부증서수여



9월 24일 중국 심양주재 조선총령사관 신령사동지가 연변지구협회 사무실에서 김권회장을 비롯한 협회성원들에게 **김일성김정일**기금기부증서를 수여하였다.

교육혁명의 불길속에 나라의 전반적교육토대 일층 강화



제14차 전국교원대회이후 교육구조가 새롭게 개선되고 수백개의 병설학교와 4320여개의 학교, 분교, 유치원 등이 신설 및 개건현대화되였다

당 제9차대회가 제시한 웅대한 교육발전목표를 달성하며 제2차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강령을 철저히 집행하기 위한 사업이 심화되고있다.

교육사업을 국사중의 제일국사로,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생명선으로 내세우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정력적인 령도밑에 새 세기 교육혁명수행의 일대 전성기가 펼쳐지고 전반적교육사업에서는 전례없는 변혁과 전진이 이룩되고있다.

제14차 전국교원대회이후 나라의 교육구조가 발전하는 현실에 맞게 새롭게 개선되고 교원력량이 질적으로 강화되였으며 전국적으로 수백개의 병설학교, 1630여개의 학교와 1590여개의 분교, 1100여개의 유치원 등이 신설 및 개건현대화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교육부문에서는 혁명의 요구, 발전하는 시대의 요구에 맞게 교육내용과 방법, 교육조건과 환경을 개선하고 중등일반교육을 비롯한 교육사업에서 새로운 전환을 가져오도록 하여야 합니다.》

제14차 전국교원대회를 전례없는 규모에서 진행하도록 해주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불후의 고전적로작 《교원들은 당의 교육혁명방침관철에서 직업적혁명가의 본분을 다해나가야 한다》를 대회참가자들에게 보내주시여 사회주의교육강국, 인재강국건설의 휘황한 앞길을 밝혀주시였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4차, 제8차전원회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4

기 제１０차회의 등에서 나라의 백년대계, 국가발전과 번영의 전도를 걸머지고있는 교육부문을 하루빨리 세계적인 높이에 올려세우는데서 나서는 과업과 방도들을 제시하시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이끌어주시였다.

당의 교육중시사상을 높이 받들고 교육성과 해당 단위들에서 우리의 교육을 가장 우월한 교육, 리상적인 교육으로 만들며 전사회적으로 교육부문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 적극화되는 가운데 나라의 전반적교육토대가 일층 강화되였다.

학생들에게 보다 선진적인 교육, 실용적인 교육을 줄수 있게 교육구조를 합리적으로, 효률적으로 개선하며 교육내용과 방법을 한계단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사업에서 뚜렷한 진일보를 가져왔다.

초등 및 중등교육을 원리교육화하는 원칙에서 제２차 전반적１２년제의무교육강령을 높은 수준에서 연구, 작성하고 교종별특성에 맞게 교수참고자료, 교수안들을 새로 편찬 및 작성하여 실행단계에 들어갔으며 필요한 교과서집필이 원만히 결속되였다.

국가교육정보체계가 개발, 구축되여 나라의 교육을 수자화, 지능화할수 있는 밝은 전망이 열리였으며 **김일성**종합대학 생명과학실험교육중심과 김책공업종합대학 종합실험교육관을 비롯한 ２０여개의 실험교육중심과 １ ６００여개의 실험실습실이 새로 꾸려져 교육의 질을 보다 높일수 있게 되였다.

교육도서인쇄공장이 자기 모습을 개변하고 해마다 질높은 교재들을 충분히 생산보장하고있으며 교육연구원이 중앙교육과학연구기관, 교육정책자문기관의 체모에 맞게 훌륭히 일떠선것도 나라의 교육을 전망적으로 발전시켜나가는데서 의의있는 성과로 된다.

교육부문전용망이 구축되여 전반적지역의 교육사업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고있으며 평양시와 각 도들에 교육지원프로그람중심들이 일떠서 교육의 현대화, 정보화를 다그쳐나갈수 있는 믿음직한 거점이 마련되였다.

전당적, 전국가적, 전사회적으로 교육사업을 중시하고 후원하는 기풍이 우리 국가특유의 국풍으로 되고있다.

위대한 당의 령도가 있고 세상에서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교육제도가 있으며 당의 교육중시사상을 충직하게 받들어나가는 인민이 있기에 우리 조국은 반드시 교육강국, 인재강국의 령마루에 올라서고야 말것이다.

신심드높이 가을걷이에 떨쳐나섰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오늘 우리앞에 나서고있는 가장 절박한 과업은 농사를 잘 지어 인민들의 식량문제를 해결하는것입니다.》

새로운 5개년계획수행의 첫해인 올해를 알곡증산성과로 빛내일 드높은 열의 안고 각지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이 신심드높이 가을걷이에 떨쳐나 힘찬 투쟁을 벌리고있다.

개성시에서

개성시의 농촌들에서 벼가을이 시작되였다. 시에서는 올해 농사를 성과적으로 결속하기 위한 투쟁에 모든 력량과 수단을 총동원, 총집중하고있다.

얼마전 시당위원회에서는 시안의 농촌초급일군들과 다수확선구자들 등을 대상으로 혁신자축하모임을 조직하였다.

쌀로써 당을 충직하게 받들어갈 마음안고 누가 알아주건말건 애국의 구슬땀을 성실히 바쳐온 애국농민들의 경험토론은 사람들속에서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이어 시내중심광장에서 시안의 수많은 주민들이 참가한 가운데 진행된 농업열성자들에 대한 평가모임은 농업근로자들의 긍지와 애국적열정을 높여주는것과 동시에 농촌을 성심을 다해 지원하는 사회적분위기를 고조시키는 의의있는 계기로 되였다.

올해 농사를 성과적으로 결속할 일념안고 농업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 지원자들이 벼가을에 일제히 떨쳐나 사회주의경쟁을 활발히 벌리며 시작부터 기세를 올리고있다.

이에 맞게 시당위원회에서는 선전선동력량과 수단을 총동원하여 가을걷이와 낟알털기에 떨쳐나선 농업근로자들과 지원자들의 투쟁열, 애국열을 최대로 분출시키기 위한 사상공세를 첨입식으로 들이대고있다.

시책임일군들은 강력한 지도력량을 현지에 파견하고 탈곡기를 비롯한 농기계들을 보장해주는 등 가을걷이와 낟알털기를 힘있게 추진하기 위한 조직사업을 실속있게 하고있다.

구역, 군들에서는 이삭이 여무는 차제로 수확을 드세게 내밀면서 시간이 다르게 성과를 확대해나가고있다.

농기계수리부문의 역할을 높이는것과 동시에 이동수리조활동을 활발히 전개하여 농산작업의 기계화비중을 훨씬 제고하고있다.

지금 시안의 농장들에서는 포전별, 필지별, 품종별특성과 작업조건을 타산하여 일정계획을 면밀히 세우고 로력과 기계수단을 집중하면서 가을걷이와 낟알털기실적을 부쩍 높이고있다.



-개성시농촌경리위원회 덕암농장에서-

곽산군에서

곽산군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이 올해농사를 하루빨리 결속하고 우리 당에 승리의 보고, 충성의 보고를 드리기 위해 줄기찬 투쟁을 벌리고있다.

하나의 지향을 안고 줄기찬 투쟁을 벌리고있는 이곳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의 헌신적인 노력에 의해 벼가을시작부터 매일 높은 실적이 기록되고있다.

당 제9차대회 결정관철을 위한 투쟁의 첫해인 올해 알곡고지를 기어이 점령할 열의에 충만된 군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은 지난해보다 벼가을을 10일이상 앞당겨 끝낼 높은 목표를 세웠다.

농사를 최단기간에 결속할수 있는 방도의 하나가 농기계가동률제고에 있다는것을 명심한 군일군들은 올해에 수십대의 벼종합수확기를 새로 마련하는데 힘을 넣었다.

또한 이미 있던 벼종합수확기들과 280여대의 벼종합탈곡기, 이동식탈곡기들에 대한 수리정비를 예견성있게 완비해놓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많은 부속품과 차바퀴를 해결하여 뜨락또르와 련결차들의 리용률을 높이기 위한 사업 등에 많은 품을 들이였다.

농사결속을 위한 만단의 준비를 갖춘 군에서는 지난 16일 벼가을에 진입하였다.

가을걷이가 시작되자 군에서는 사상전의 포성을 더 높이 울리는 한편 농사결속과 관련한 작전과 지휘를 주도세밀하게 하고있다.

군적으로 대중을 가을걷이에로 불러일으키는 구호와 표어 등을 곳곳에 게시하는 사업들이 기동적으로 전개되였으며 선전선동사업을 참신하면서도 인식교양적효과가 크게 진행하기 위한 조직사업도 강화되고있다.

군일군들은 지난해보다 수확량이 훨씬 늘어나고 가을밀씨뿌리기가 겹치는데 맞게 일정계획을 면밀히 세우는것과 함께 로력배치와 작업조직을 합리적으로 하면서 이신작칙의 모범으로 대중을 이끌고있다.

농기계가동에 필요한 부속품과 연유보장대책도 앞질러가며 세워 만가동, 만부하의 동음이 높이 울리도록 하고있다.

모든 농장의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은 신심도 드높이 가을걷이를 본때있게 내밀고있다.

올해 농사를 잘 지은 와도농장이 벼가을에서 련일 혁신을 일으키고있다.

농장에서는 애써 가꾼 곡식을 허실없이 거두어들이기 위해 작전과 지휘를 혁신적으로 하고있다.

특히 낟알의 여문 상태를 포전별, 필지별로 정확히 따져본데 기초하여 벼베기를 내밀고있다.

벼종합수확기와 뜨락또르를 비롯한 농기계들의 가동률을 최대로 높여 벼가을과 운반을 립체적으로 추진하며 실적을 올리고있다.

렴호농장에서도 포전별순차를 바로 정하고 그에 맞게 로력과 농기계를 합리적으로 배치하여 작업속도를 높이고있다.

농업근로자들은 서로 돕고 이끄는 집단주의기풍을 높이 발휘하며 일손을 다그치고있다.

룡승농장의 농업근로자들도 그날과제는 무조건 그날로 수행하기 위하여 과감한 투쟁을 벌리고있다.벼종합수확기운전공들이 만가동의 동음을 높이 울리면서 일자리를 푹푹 내고있다.

적기를 바로 정하고 벼가을에 진입한 군안의 다른 농장들에서도 성과가 확대되고있다.

군급기관, 기업소의 일군들과 근로자들, 군안의 가두녀맹원들도 농사일이자 자기 부문, 자기 단위 사업이고 자기 가정, 자기자신을 위한 일이라는 확고한 관점을 지니고 가을걷이를 로력적으로만이 아니라 물질적으로도 도와나서고있다.

올해 농사를 성과적으로 결속하고 어머니 우리당에 충성의 보고를 드릴 일념 안고 분발해나선 군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의 헌신적인 투쟁에 의하여 가을걷이실적은 시간이 다르게 오르고있다.

논판양어정책의 정당성을 첫해부터 힘있게 과시
전국의 많은 농촌들이 메기수확으로 흥성이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인민생활과 직결되여있는 부문과 단위들을 추켜세우고 생산을 늘이는데 큰 힘을 넣어 인민들에게 생활상혜택이 더 많이 차례지게 하여야 하겠습니다.》

황금빛 짙어가는 전야들에 농촌변혁의 새시대를 자랑하는 또 하나의 화폭이 호뭇하게 펼쳐지고있다. 각지에서 메기풍년자랑이 그칠새없이 울려나오고있는 속에 수확이 시작되였다.

물 절반, 고기 절반



지난해 삼복의 무더위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인민군군부대 후방기지를 찾으신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양어를 통한 유기농법도입에서 실천적인 본보기를 창조한데 대해 높이 치하하시며 이곳 일군들이 확립한 우리 식의 록색재배 및 양어생산방법을 확대도입할데 대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올해 농업위원회와 각 도, 시, 군의 책임일군들은 논판양어정책의 정당성을 첫해부터 힘있게 과시할 드높은 열의 안고 이 사업에 큰 품을 넣었다.

물우에서는 무겁게 고개숙인 벼이삭이 설레이고 물밑에서는 메기들이 욱실거려 농업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의 기쁨과 보람이 날로 커가는 속에 메기수확소식이 경쟁적으로 전해지고있다.

원산시 룡천농장의 메기풍년소식이 자랑스럽다. 농장에서는 5정보의 논을 논판양어포전으로 정하고 6월 10일부터 3일동안 12~15㎝크기의 새끼메기들을 놓아주었는데 지금은 평균 0.8~1.3㎏정도 되는 물고기들이 와글거려 마치 논물이 부글부글 끓는것같다고 한다.

지난 3일부터 수확을 시작한 농장원들은 첫날 하루동안에만도 0.3정보에서 5t을 건져내고도 미처 다 잡지 못하여 다음날까지 그 포전을 떠나지 못하였다. 현재까지 2.5정보에서 57.6t을 수확하였는데 남은 2.5정보에서의 수확량까지 합치면 110t이상 될것같다고 확신성있게 말하는 농장일군들과 농장원들의 얼굴마다에서는 웃음이 떠날줄 모른다.

숙천군 약전농장이 날마다 메기수확으로 흥성이고있다. 군당위원회의 지도밑에 거의 모든 작업반들에서 1 000~1 500평씩 지력이 낮은 포전들을 위주로 적지를 선정하고 논판양어를 실속있게 진행한 농장에서는 지난 4일부터 매일 많은 메기를 수확하고있다. 첫날에는 제12작업반에서, 이튿날에는 제5, 2, 13작업반에서, 또 다음날에는 제3, 6, 9, 11작업반에서, 이렇게 논판양어를 진행하는 모든 작업반들에서 보통 0.7~1.2㎏되는 메기들을 계속 퍼내고있는데 이제 하루이틀사이에 1정보 농장시험포전에서까지 수확하고나면 거의 100t이 될것같다고 한다. 태탄군 읍농장에서도 메기풍년소식이 전해졌다. 읍농장 직속3분조를 논판양어확대도입을 위한 시범단위로 정하고 실속있는 지도를 안받침한 군과 농장일군들의 적극적인 노력은 응당한 결실을 안아왔다. 농장에서는 0.2정보의 논에서 8.3t의 메기를 수확하여 논판양어를 장려할데 대한 당정책의 정당성을

첫해부터 힘있게 과시하였다. 홍현, 수복, 역구도농장을 비롯한 배천군안의 농장들도 팔뚝같은 메기들을 수확하며 날마다 들썩이고있다.

황주군과 영광군, 평성시를 비롯하여 적기를 맞추어 메기수확에 속속 진입하고 있는 각지의 많은 농장들에서도 련일 자랑스러운 소식이 전해지고있다.

처음 보는 논벼작황

논판양어정책의 정당성과 생활력은 논벼작황을 통해서도 힘있게 과시되고있다.

천리마구역 강선농장 제5작업반을 놓고보아도 올해 2정보의 논에서 논판양어를 진행하였는데 논벼의 이삭당알수는 보통 270알정도로서 일반포전보다 평균 60~70알 더 많다고 한다.

논판양어를 하니 메기들의 감탕들추기 작용으로 하여 논벼의 뿌리활성이 높아진것은 물론 아지를 많이 쳤으며 벼대가 눈에 띄게 충실해졌다. 메기와 논벼는 서로 공생관계를 유지하는데 메기가 내보내는 탄산가스를 벼가 흡수하고 벼가 내보내는 산소를 메기가 호흡한다. 이것 또한 메기와 논벼의 성장을 다같이 좋게 하는 중요한 비결로 되여 지난해보다 정보당 1.5t이상의 알곡을 증수할것같다는것이 이곳 일군들과 농장원들의 한결같은 목소리이다. 정평군 률성농장의 일군들과 농장원들도 많은 메기를 수확하는것과 함께 논벼작황상태가 대단히 좋아 기쁨을 금치 못하고있다.

논벼유효아지수는 다른 포전에 비해 1.5배나 늘었고 이삭당알수도 40~50알 더 많다고 한다.

뿐만아니라 논판양어를 도입한 포전들에서 놀라운 지력개선효과를 보았다. 맨발로 땅을 밟으면 미끈미끈한감이 드는것을 비롯하여 지력이 너무 높아 다음해에는 올해 논판양어를 한 포전에 거름을 따로 내지 않을 계획이라고 한다.

사리원시 정방농장의 일군들과 농장원들도 바다가 먼 지역에서 많은 메기를 수확하였는데 더우기 놀라운것은 논판양어 포전에 처음 보는 논벼작황이 마련된것이라고 자랑을 아끼지 않고있다.

논판양어포전에서 김잡이라는 말자체를 모르고 살초제를 전혀 쓰지 않으면서 흐뭇한 메기작황과 함께 논벼작황도 마련했다는 동림군 읍농장, 정주시를 비롯한 많은 지역, 단위들의 자랑은 당에서 가르쳐준대로만 하면 얼마든지 논벼풍년, 물고기풍년을 함께 안아올수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

높아가는 자신심

올해의 투쟁을 통하여 이룩된 중요한 성과는 논판양어를 장려할데 대한 당정책을 더 잘 받들어나갈수 있는 물질기술적토대가 마련되고 많은 경험이 축적된것이다.

논판양어를 위한 기술지도서(잠정)가 작성시달되고 100여개의 도, 시, 군종어사업소 및 작업반이 빠른 기간에 새로 건설되거나 개건보수되였다.

재령군 삼지강농장에서는 150t능력의 랭장고, 팽화먹이생산실, 단백먹이서식장 등을 새로 건설하였다. 특히 농장에서는 자체의 종어생산체계를 구축하고 80만마리의 새끼메기를 생산하여 논에 놓아주고도 남아 군안의 농장들에 보내줄수 있었다.

만경대구역 칠골남새농장에서도 논판양어를 하는 포전의 앞그루작물로 마늘을 재배하여 토지리용률을 높일수 있게 하고 단백먹이서식장꾸리기와 나비등설치 등 실리보장의 원칙에서 먹이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현실적인 방도를 찾아 실행해나갔다. 특히 팽화먹이를 생산하여 리용할수 있게 기계화작업반에서의 설비제작에 주목을 돌려 좋은 작황을 안아왔다.

오늘 우리 농촌에 펼쳐지고있는 자랑찬 현실은 당정책은 과학이고 진리이며 당에서 하라는대로만 하면 얼마든지 잘살수 있다는것을 다시금 확증해주고있다.

수확의 기쁨이 커갈수록 인민을 위한 우리 당정책을 더 잘 받들어갈 농업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의 각오와 열의는 백배해지고있다.









전국인공지능부문 과학기술발표회 및 연구토론회 진행

전국인공지능부문 과학기술발표회 및 연구토론회가 조선과학기술총련맹 중앙위원회 조선인공지능학회의 주최로 15일과 16일 인민대학습당에서 진행되였다.

이번 발표회 및 연구토론회는 당 제9차대회에서 제시된 강령적과업을 받들고 인공지능부문에서 이룩된 우수한 과학기술성과들을 널리 보급일반화하여 나라의 인공지능기술수준을 끌어올리는데 목적을 두었다. 김일성종합대학, 김책공업종합대학, 평양제1사범대학, 차광수신의주사범대학, 국가과학원 수학연구소를 비롯한 20여개 단위의 교원, 연구사, 박사원생 등이 참가하였다.

《인공지능산업의 개척과 운영, 핵심기술연구개발》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발표회에는 인공지능과 관련한 선진기술을 적극 창조, 도입하여 인민경제의 지능화, 무인화수준을 제고하는데 이바지하는 90여건의 가치있는 론문들이 제출되였다.

연구토론회에서는 지능형로보트기술개발수준을 보다 높은 단계에 올려세우는데서 나서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방안들이 토의되였다.

이 기간 최근 대규모언어모형기술과 인지과학기술의 세계적발전추세에 대한 강의들도 있었다. 전국인공지능부문 과학기술발표회 및 연구토론회는 인공지능기술을 자기 부문, 자기 단위의 실정에 맞게 부단히 완성하고 산업화하여 경제장성과 사회발전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하도록 하는데서 의의있는 계기로 되였다.

농업과학자들 염도가 높은 간석지논에서의 영양랭상모재배기술도입에 성공

《로동신문》에 의하면 농업과학원 벼연구소 온천벼연구분소의 과학자들이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염도가 높은 간석지논에서의 영양랭상모재배기술도입에 성공하였다.

로력공수와 영농자재를 절약하면서도 정보당소출을 높일수 있는 연구성과가 이룩됨으로써 알곡생산목표점령에 이바지할수 있는 또 하나의 밝은 전망이 열리였다.

현재 간석지포전마다 펼쳐진 벼생육상태는 대단히 좋다. 예상수확고를 평가해본데 의하면 지난해에 비해 정보당 1t 이상 증수할것이 예견된다고 한다. (끝)

제 20 차 아시아경기대회에서 - 력기경기에서 -



리성금선수



강현경선수



오광옥선수



리원주선수



박명진선수

우리 나라의 리성금, 강현경선수들이 제２０차 아시아경기대회에서 영예의 우승을 쟁취하였다.

２３일 녀자력기 ４９kg 급경기에 출전한 리성금선수는 끌어올리기에서 ９４kg(세계신기록, 아시아신기록, 대회신기록), 추켜올리기에서 １２１kg(세계신기록, 아시아신기록, 대회신기록), 종합 ２１５kg(세계신기록, 아시아신기록, 대회신기록)을 들어올리고 단연 1위를 하였다.

강현경선수는 녀자력기 ５３kg 급경기 끌어올리기에서 ９９kg(대회신기록), 추

켜올리기에서 １２４kg(대회신기록), 종합 ２２３kg(대회신기록)의 성적으로 금메달을 획득하였다.

한편 우리 나라의 리진미, 리소향선수들은 연식정구 녀자단식경기에서 각각 2위와 3위를 하였다.

우리 나라의 박명진선수가 제 20 차 아시아경기대회 남자력기경기에서 금메달을 쟁취하였다.

24 일 65 kg급경기에 출전한 그는 끌어올리기에서 146 kg, 추켜올리기에서 182 kg(대회신기록)을 들어올리고 종합 328 kg(대회신기록)의 성적으로 1 위를 하였다.

한편 방은철선수는 남자력기 60 kg급경기에서, 안창옥선수는 기계체조 녀자 조마운동에서 각각 은메달을 획득하였다.

탁구, 기계체조 녀자단체경기에서 우리 선수들은 각각 3 위를 하였다.

２５일 녀자력기 ５７kg급경기에 출전한 오광옥선수는 끌어올리기에서 １０４kg(세계신기록, 아시아신기록, 대회신기록), 추켜올리기에서 １３４kg(세계신기록, 아시아신기록, 대회신기록)을 성공시킴으로써 종합 ２３８kg(세계신기록, 아시아신기록, 대회신기록)의 성적으로 영예의 우승을 쟁취하였다.

한편 박진해선수는 녀자력기 ６１kg급경기에서 은메달을 획득하였다.

２６일 ７０kg 급경기에 출전한 리원주선수는 끌어올리기에서 １５１kg, 추켜올리기에서 １９８kg(세계신기록, 아시아신기록, 대회신기록)을 성공시키고 종합３４９kg(세계신기록, 아시아신기록, 대회신기록)의 성적으로 영예의 금메달을 쟁취하였다.

한편 조진미, 김미래선수들은 물에뛰여들기 녀자 １０m 고정판 동시경기에서 2위를, 리청송선수는 남자력기 ７５kg 급경기에서 3위를 하였다.

서부지구영예군인보양소 준공



서부지구영예군인보양소가 훌륭히 건설되였다.

황해남도 신천군의 풍치수려한 지역에 1 만여㎡의 연건축면적에 외랑으로 련결된 특색있는 건물들로 꾸려진 보양소에는 침실과 물치료장, 운동치료실, 리발실, 영화관람실을 비롯하여 영예군인들의 편의를 최대한 보장할수 있는 다양한 봉사조건과 환경이 갖추어져있다. 서부지구영예군인보양소 준공식이 15 일에 진행되였다.

보건상 김두원동지, 황해남도인민위원회 위원장 안명준동지, 관계부문, 보양소 일군들, 종업원들, 건설자들, 신천군안의 근로자들이 참가하였다. 로동상 진금송동지가 준공사를 하였다. 준공식이 끝난 다음 참가자들은 영예군인보양소를 돌아보았다. (끝)

《원산갈마료리축전-2026》 개막

《원산갈마료리축전-2026》이 조선료리협회 중앙위원회의 주최로 개막되였다.

《명사십리에서의 우리의 맛, 우리의 향기》라는 주제로 열린 축전에는 인민봉사부문, 성, 중앙기관 봉사부문, 각 도(직할시)대외봉사부문과 급양봉사부문,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 봉사부문의 단체들이 참가하였다.

14일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에서 진행된 개막식에는 관계부문 일군들, 해당 부문의 료리사, 접대원, 애호가들이 참가하였다.

축전기간 료리전시회와 봉사경연, 우수한 료리사, 접대원들의 시범출연 등이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진행되게 된다. (끝)





연변조선족자치주 창립 74주년 열렬히 축하!



산하에 비단결 같은 풍경이 펼쳐지고 세월의 갈피마다 영광의 력사가 새겨진다. 계절이 순환하는 가운데 힘차게 전진하는 로정에서 우리는 연변조선족자치주 창립 74주년을 맞이했다.

74년간 끊임없이 노력하며 연변은 힘을 모아 고품질발전에서 속도를 내고 변강진흥의 대국에 힘을 보탰다. 경제발전은 력사적인 도약을 이루었고《5대 신산업》이 빠르게 육성되고 성장했으며 신품질생산력이 급속히 성장하여 지역 총생산액이 천억원의 관문을 돌파했다. 문화관광산업이 활발히 성장하면서 《연길이라는 생활(有一种生活叫延吉)》이라는 문화관광브랜드의 영향력이 계속 확대되고 있으며 관광객수와 관광 총수입이 잇따라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개방동력이 계속해서 폭발하고 있다. 장훈 도시간 철도 전 구간 개통부터 G331 도로변 개방관광대통로 연변구간 전 구간 련결, 장길도 개발개방선도구 건설이 국가 전략으로 격상된 데 이어 연길-장백 중점 개발시험구가 승인을 받기까지, 킹크랩 수입량이 전국 총량의 80%를 차지하고 외래무역 수출입 총액이 성 전체의 24%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연변은 강을 건너 바다에 이르는 넓은 시야로 《전 세계에서 사고 전 세계에 판다》는 새로운 개방구도를 구축하며 《일대일로》 공동건설과 동북 지역 전면적 진흥에 깊이 융합하는 과정에서 연변의 책임감을 드러내고 있다.

74년간 이어져온 신념의 횃불 아래 연변은 민족단결의 생명선을 굳건히 지키며 중화민족공동체의식을 오감으로 와닿게 효과적으로 확고히 다져왔다. 전국에서 유일한 조선족자치주이자 최대의 조선족집거지로서 자치주는 설립된 이래로 각 민족이 형제처럼 서로 아끼고 돕는 단결의 발자취를 새겨왔다. 이웃간에 서로 돕는 따뜻한 정에서부터 함께 어려움을 극복하는 발전실천에 이르기까지 대대로 이어져온 애국심에서부터 서로 어우러져 번영하는 민속문화에 이르기까지 전 주의 모든 민족 주민들은 석류씨처럼 굳



게 뭉쳐있다. 연변은 련속 5차례 《전국민족단결진보 모범집체》로 선정되였고 여러개의 전국민족단결진보시범구 시범단위를 성공적으로 배출했다. 2025년에 《연변조선족자치주 민족단결진보촉진조례》를 제정해 법치로 민족단결진보사업을 지원하고 민족단결의 꽃이 장백산 아래, 도문강반에서 피여나고 번성하도록 함으로써 변방지역의 가장 굳건한 단결의 기반을 다졌다.

연변 74년의 눈부신 성과는 당의 민족정책이 뿌리내리고 자리 잡은 강력한 생명력을 보여주며 전 주 각 민족 간부와 군중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분투하며 일군 실천의 지혜와 땀이 응축되여있다. /인민넷-조문판

연길조선족민속원 모래판우에 새겨진 씨름의 숨결

연변조선족자치주 창립 74주년 경축 씨름대회 연길에서



연길의 9월은 유난히도 길다. 아침 해살이 민속원의 푸른 기와장 우에 닿자 오래된 대청마루가 반짝이며 온기를 밸어낸다.

이곳은 중국조선족민속원이다. 해마다 가을이면 전통 씨름의 함성이 흙먼지를 일으키는 곳이다. 올해는 특히나 뜻깊다. 연변조선족자치주 창립 74주년을 경축하는 제14회 민족식 씨름대회가 펼쳐진 것이다.

9월 3일, 경기장은 아침부터 북적였다.

할아버지들의 긴 담배대 연기와 아이들의 까르르 웃음소리가 뒤섞이고 엄마들은 아이들의 살바를 다시 매듭지으며 《허리를 낮추라》는 주문을 쉬지 않는다. 선수들이 하나둘 모여들었다. 연길, 도문, 룡정, 왕청, 화룡, 안도, 훈춘 그리고 할빈과 길림, 장춘



에서까지 10개 대표팀이 기발을 들고 입장했다. 저마다의 고장 색갈을 입은 선수들은 긴장과 기대를 얼굴에 새기고 씨름판을 향해 걸음을 옮겼다.

씨름대회를 위해 다져진 모래판우에서 가을별이 내리쬐자 텁텁한 향이 올랐다. 심판의 호각이 울리고 첫 경기가 시작된다. 소학교 체급은 11개나 되였다. 아직 키가 크지 않은 꼬마 선수들이 샅바를 붙잡고 엉거주춤 자세를 잡는 모습이 어찌나 귀여운지 관중석에서는 웃음이 터졌다.

그러나 그들의 눈빛은 이미 투사였다. 몸을 낮추고 상대의 중심을 읽으며 한걸음 한걸음 원을 그린다. 갑자기 작은 몸집이 날쌔게 돌며 다리를 걸자 상대가 그대로 넘어갔다. 박수 소리가 터져나왔다. 저 어린 나이에 이미 씨름의 《흐름》을 아는 것이다.

중학교부는 더욱 치렬했다. 사춘기의 탄력 있는 몸이 부딪히는 소리가 경쾌했다. 특히 녀자 중학생부의 두 체급 경기는 시선을 사로잡았다. 샅바를 맨 소녀들이 허리를 숙이고 서로를 견제하는 모습은 전통과 현대가 만나는 한폭의 그림 같았다. 그중 한 소녀는 이마에 땀방울이 맺힌 채로 미소를 잃지 않았고 넘어질 때마다 벌떡 일어나 다시 자세를 잡았다. 그 집념에 관중들은 더 큰 함성을 보냈다.

한낮이 되자 성인부 경기가 시작되였다. 몸집이 우람한 장정들이 샅바를 감고 모래판에 오르면 땅이 울렸다. 62kg 이하급에서는 연길시의 김광준이 유려한 발놀림으로 상대를 제압했고 도문시의 리지훈과 왕청의 김준희가 그 뒤를 이었다.

87kg 이하급에서는 화룡시의 박성환이 압도적인 힘으로 우승을 차지했고 룡정시의 허성룡과 왕청현의 리지성이 아쉽게 패했다.

그러나 진짜 감동은 그다음이였다. 바로 로년조 경기였다. 50세 이상 경기는 할빈에서 온 리충산(66세)과 송태일(63세), 길림의 김충국(61세)과 리성보(59세)씨다. 그들이 씨름판에 오르는 순간 관중석이 술렁였다. 그들의 등에는 구부정한 로년의 곡선이 있었지만 샅바를 감는 손끌은 여전히 정확했다.

첫 경기, 리충산씨가 상대의 샅바를 잡고 느릿하게 원을 그리다가 갑자기 허리를 낮추며 밀어붙였다. 그 순간 그의 눈빛은 50년 전,

소년 시절 처음 씨름판에 섰던 그날의 그것이였다.

흙먼지가 일고 상대가 넘어졌다. 관중석에서 터져 나온 함성은 그를 향한 찬사이자 지난 청춘 못지 않은 녹쓸지 않은 기량에 대한 평가였다.

경기 후 그는 숨을 헐떡이며 웃었다.

《이 맛에 사는 거지.》 그 말에 모두가 다시 한번 박수를 쳤다.해가 기울 무렵 마지막 결승전이 펼쳐졌다. 성인부 87kg 이상급, 룡정시의 유택군과 최지성의 맞대결이였

다. 두 선수는 같은 고향에서 온 동지이자 라이벌이였다. 살바를 잡고 마주 선 그들의 눈빛에는 승부를 넘어선 존경이 담겨 있었다.

심판의 호르래기 소리와 함께 긴 정적속에 관중들은 숨을 죽였다. 유택군이 먼저 움직였다. 그는 오른발을 살짝 뒤로 빼며 상대의 중심을 흔들었고 최지성이 그에 반응해 몸을 낮췄다.

그 찰나 유택군의 왼다리가 번개처럼 상대의 오른쪽 다리를 걸어채며 온몸을 돌렸다. 《돌려치기》였다. 최지성이 허공에서 한바퀴 돌아 모래판 바닥에 나자빠졌다. 동시에 함성이 민속원 하늘을 가르고 심판의 팔이 유택군을 가리켰다.

승리였다. 유택군은 두 팔을 들고 하늘을 쳐다보았다.

그의 얼굴에 땀과 모래가 뒤섞여 반짝였다. 전통에 따라 그는 우승의 상징인 황소 한 마리를 넘겨받았다. 누런 털이 해빛에 윤이 나는 황소의 목에는 붉은 꽃 띠가 둘러져 있었다.

유택군이 그 띠를 잡고 황소를 끌고 경기장을 한바퀴 돌았다. 그가 지나갈 때마다 관중들은 손을 내밀어 그를 축하했고 아이들은 황소를 따라 뛰며 환호했다. 이 순간은 74년 전 자치주가 설립된 그날의 함성과도 겹쳐 보였다.

경기 후 유택군은 인터뷰에서 눈시울을 붉혔다.

《자치주 창립 74주년 경축일에 우승하게 되여 영광입니다. 이 황소는 저만의 것이 아니라 연변의 모든 씨름군들의 것입니다. 래년 전국소수민족전통체육운동회에서 반드시 금메달을 따내 연변의 이름을 빛내겠습니다.》

그의 말에 주변의 선수와 코치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연변성주청소년체육구락부의 리설봉 대표는《이번 대회를 통해 연변주내의 많은 학교와 청소년들이 씨름의 매력을 느꼈으면 합니다. 전통은 우리가 지켜야 할 뿌리니까요.》라고 덧붙였다.

씨름판이 자취를 감출 무렵 민속원에는 민간 악단의 가야금과 장구 소리가 울려 퍼졌다. 관중들은 아직 자리를 뜨지 못하고 오늘의 명장면을 되새기며 수군거렸다. 로년조 할아버지들의 투혼, 소녀 선수의 눈물, 유택군의 황소 행진—그 모든 것이 가을 하늘 아래 하나의 이야기로 엮였다.

연변의 74주년은 이 모래판 우에 고스란히 새겨져 있었다.

씨름은 단지 상대를 넘어뜨리는 기술이 아니였다.



그것은 땅을 딛고 서서 자신의 무게를 견디며 상대의 힘을 읽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삶의 철학이였다.

이 날의 함성과 땀방울은 앞으로도 수많은 가을을 거쳐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그리고 연변이라는 땅의 뜨거운 숨결로 전해질 것이다.

9월 1일부터 실시되는 일련의 국가표준

9월 1일부터 59개의 강제성 국가표준과 375개의 추천성 국가표준이 실시되기 시작한다. 그중 가전제품, 로보트 지능형 제어, 스마트단말 소프트웨어플랫폼, 전자상거래 등 중요한 국가표준은 관련 산업의 고품질발전을 이끌고 제품의 품질을 높이며 인민들의 더 나은 삶에 대한 요구를 충족하는 데 필요한 표준적 버팀목을 제공할 것이다.

<가정용 및 류사용도 전자기기 건강기술규범> 강제성 국가표준은 가정용 및 류사용도 전자기기에 적용되는 건강기술의 전반적 요구사항과 자외선 로출량, 소음 등 지표요구를 규정했다.
<가정용 및 류사용도 전자기기 에너지절약 환경보호규범> 강제성 국가표준은 가정용과 류사용도 전자기기의 생산단계, 설치단계, 회수 재리용단계 등 생명주기단계의 에너지절약 환경보호 요구 및 제품 자체의 에너지절약 환경보호 요구를 규정했다.
두가지 표준의 실시는 가전제품업계가 사용자의 건강위생과 에너지절약 환경보호 요구를 충분히 고려하도록 이끌어 제품품질을 높이고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된다.

<로보트 지능형 제어시스템의 총체적 구조> 추천성 국가표준은 로보트 지능형 제어시스템의 총체적 구조 및 하드웨어차원, 조작시스템차원 중간차원, 알고리즘차원의 론리적 구조와 주요기능을 규정했다.
이 표준의 실시는 우리 나라 로보트 지능형 제어시스템의 연구개발과 응용을 규범화하고 관련 제품의 현장적용을 추동하는 데 도움이 된다.

<지능형 단말소프트웨어플랫폼 기술요구 제1부분: 조작시스템> 추천성 국가표준은 지능형 단말소프트웨어플랫폼의 운영시스템 구조 및 커널(内核), 런타임(行时), 서비스 등 요구를 규정했다.
이 표준의 실시는 지능형 단말소프트웨어플랫폼이 백성들의 일상생활, 업무에 더 나은 지능형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촉진할 것이다.

<전자상거래상품 입소문지수 평가지침> 추천성 국가표준은 전자상거래상품 입소문지수 평가업무의 기본원칙, 평가지표, 평가데터 등을 규정했다.
이는 소비자가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리도록 이끌어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된다.

<오리털> 추천성 국가표준은 오리털의 제품분류, 외관특징 등 기술요구를 규정했다. <오리털 검사방법> 추천성 국가표준은 정세탁 오리털과 조세탁 오리털의 시료채취, 성분분석, 중요지표 측정 등을 규정했다.

두가지 표준의 실시는 오리털제품 검사의 정확성을 높이고 관련 산업의 고품질발전을 이끄는 데 도움이 된다. /인민넷-조문판

중국 인구 총량 14.05억, 인구대국 기본면 변함없어

9월 14일, 국무원 보도판공실은 《<15.5> 시작 및 출발》 주제뉴스발표를 개최했다.

국가위생건강위원회 주임 뢰해조는 현재 중국 인구 총량은 14.05억명으로 세계에서 장기적으로 인구대국지위에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최근 4년 동안 인구는 마이너스성장을 보였지만 인구대국의 기본면은 변함이 없다. 고등교육이 활발하게 발전하여 매년 새로 입학하는 대학생수가 1000만명을 상회하고 있어 사회에 고품질 로동력자원을 제공할 수 있다. 최근 몇년간 신생아 출생수는 다소 감소했지만 여전히 800만명 정도의 수량급을 유지하고 있다.

기타 선진국, 개발도상국과 비교할 때 출생인구가 이 수준에 있는 것은 매우 드물기 때문에 향후에도 여전히 비교적 충족한 로동력자원을 가지고 있다. /인민넷-조문판

중국에서 활발히 진척되고있는 사회주의건설

중국인민이 당의 령도밑에 제15차 5개년계획의 첫해 과업을 완수하는데 힘을 넣고 있다. 얼마전에 열린 중국국무원 제12차 전체회의에서 리강총리는 제15차 5개년 계획의 첫해 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투쟁을 더욱 다그칠데 대하여 강조하면서 중요대상 건설을 틀어쥐고나아가며 각 분야의 사업을 계획적으로 추진시켜야 한다, 경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유지하고 국내수요를 확대시키는 전략을 견지하며 중요분야들에 계속 힘을 넣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중국당과 정부에 있어서 올해 계획을 완수하고 경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유지하는것은 새 5개년계획의 성과적수행을 위한 도약대를 마련하는 중요한 사업이다.

제15차 5개년계획은 3월에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14기 제4차회의에서 결정되였다. 그에 따라 제시된 올해 과업은 매우 방대하다.

생산과 건설에서 질을 더욱 높이고 과학기술의 자립성을 일층 강화하며 인민생활개선에서 보다 큰 진전을 이룩하기 위한 사업들이 예견되여있다.

제조업의 수자화, 지능화를 적극 다그치고 선진제조업과 봉사업의 융합을 심화시키며 새 기술의 규격화, 상업화를 촉진해야 한다. 새로운 산업의 개발도 추진하게 되여있다. 중국당과 정부, 인민은 올해 과업을 훌륭히 완수함으로써 제15차 5개년계획기간에 사회주의현대화를 기본적으로 실현할수 있는 기초를 튼튼히 다지려 하고있다.

경제와 과학기술 등 여러 분야에서 제시된 과업들을 수행하기 위한 노력이 적극화되고있다. 도시의 면모를 일신하기 위한 사업이 계획적으로 진척되고있다.

지난 5월 중국국무원은 《제15차 5개년계획기간 도시갱신과 관련한 전망계획》을 발표하였다. 계획에 준하여 도시개발 및 건설방식을 전환하고 봉사효률을 높이며 환경을 개선하고 문화유산을 보호하는 사업이 실속있게 전개되고있다.

농업 및 농촌의 현대화를 위한 계획들이 실행되고있다.

국무원이 배포한 《제15차 5개년계획기간 농업 및 농촌현대화를 다그칠데 관한 계획》에는 농업생산력을 제고하고 농업과학기술을 발전시키며 농민들의 수입을 늘이고 록색생산방식을 추진하는것과 함께 향촌건설과 농촌개혁을 촉진하고 농촌인재대오를 강화할데 대한 문제들이 구체적으로 밝혀져있다.

해당 목표들이 달성되면 2030년까지 공고한 식량안전토대가 구축되고 농업과학기술의 자립자강수준이 대폭 향상되며 농업을 현대화된 대규모산업으로 건설하는데서 돌파구가 열리는 등 농업과 농촌발전에서 큰 성과가 이룩될것이다.

중국의 각 지역과 부문들에서 새로운 5개년계획의 첫해 과업을 완수하기 위한 투쟁이 활기있게 벌어지고있는것은 사회주의현대화건설의 보다 밝은 전망을 기약해주고있다.

주택도시농촌건설부: 4층 및 이상 주택 모두 승강기 설치해야



9월 18일, 국무원 보도판공실은 9월 18일, 국무원 보도판공실은 《출발 <15.5>》 계렬 주제기자회견을 개최하여 《15.5》시기 주택과 도시와 농촌 건설사업 고품질발전 관련 정황을 소개하였다.

주택도시농촌건설부 보도대변인, 부부장 진소왕은 관련 질문에 답변할 때 다음과 같이 밝혔다. 인민군중들의 거주수준을 높이려면 관건은 《좋은 집》을 건설하는 것이다. 어떤 《좋은 집》을 건설할 것인가? 안전하고 편안하며 친환경적이고 스마트한 집이다. 어떻게 《좋은 집》을 건설할 것인가? 좋은 표준, 좋은 재료, 좋은 건조, 좋은 운영을 전 과정, 전 생명주기에서 추진해야 한다. 《<좋은 표준>이란 무엇인가? 우리는 인민군중들이 좋다고 생각하는 표준이 바로 좋은 표준이라고 생각한다.》 진소왕은 주택도시농촌건설부는 시종 인민을 중심으로 삼는 것을 견지하고 군중들의 거주조건 개선에 대한 의견을 참답게 청취하여 14가지 방면에서 주택품질요구를 향상시킬 것이라고 소개했다. 례를 들어 다음과 같다.

군중들이 반영하는 층고가 낮은 문제에 대해 우리는 층고표준을 기존의 2.8메터에서 3메터로 향상시킨다.

로인군중들의 아빠트를 오르고내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 표준은 4층 및 이상 주택은 모두 엘리베이터를 추가해야 한다고 제기했다.

어린이 안전보호문제에 대해 베란다, 외부 복도 등 모든 공중접함부의 란간높이를 1.2메터 이상으로 일괄 상향조정한다.

/人民网

조중왕래
chaozhongwanglai

中国青年干部代表团访朝，祭扫志愿军烈士陵园

北京日报



新华社平壤 9 月 18 日电 14 日至 18 日，第三届中国青年干部代表团在朝鲜进行为期 5 天的祭扫交流活动。其间，代表团先后祭扫位于桧仓、开城、安州等地的中国人民志愿军烈士陵园，参谒中朝友谊塔，参观中国人民志愿军司令部旧址、朝鲜祖国解放战争胜利纪念馆，并同朝方人员展开积极交流。





此次访朝代表团由中国退役军人事务部组织，成员包括 48 名中央和国家机关、解放军及省市选派的优秀青年干部。

15 日，在位于桧仓的中国人民志愿军烈士陵园，代表团成员在庄严肃穆的气氛中向志愿军烈士铜像敬献花篮、鞠躬默哀，缅怀志愿军先烈的丰功伟绩。

代表团团长、退役军人事务部褒扬纪念司（国际合作司）副司长李敬先说：“我们在这里隆重举行祭奠仪式，缅怀在朝鲜战场英勇捐躯的中国人民志愿军烈士。我们要永远铭记他们为世界和平与人类进步事业作出的巨大贡献，要牢记战争给人类带来的深重灾难，倍加珍惜和维护来之不易的和平环境。”

代表团成员、国防科技大学学员毛东东在毛岸英烈士铜像前祭酒、敬上从家乡带来的月饼。毛东东说：“很快就要中秋节了，我们都非常怀念您。

今后我们要更加努力学习工作，为强国强军事业作出我们这一代人的贡献。”

在同朝方人员的交流中，代表团成员表示，希望中朝双方密切沟通配合，落实好两党两国最高领导人达成的重要共识，共同维护好、管理好在朝志愿军烈士纪念设施。 /新华社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７８돐에 즈음하여 중국인민대외우호협회와 중조우호협회가 연회 마련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７８돐에 즈음하여 중국인민대외우호협회와 중조우호협회가 공동으로 ７일 베이징에서 연회를 마련하였다.

연회에는 리룡남 중국주재 우리 나라 특명전권대사와 대사관성원들이 초대되였다.

로향동 중국인민대외우호협회 부회장과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대외련락부, 외교부, 상무부, 문화 및 관광부, 중앙군사위원회 국제군사협조판공실, 인민대외우호협회, 국제우호련락회, 베이징시인민정부, 베이징시인민대외우호협회를 비롯한 관계부문 일군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연회에서는 연설들이 있었다.

로향동부회장은 장기간의 혁명투쟁과 사회주의건설과정에 두 당, 두 나라 령도자들께서 마련하고 가꾸어오신 중조친선은 국제정세의 변화와 시대적변천의 시련을 이겨내며 새롭게 변모되면서 공동의 귀중한 재부로 되였다고 언급하였다.

지난 78년간 근면하고 용감한 조선인민은 **김일성**주석과 **김정일**동지, **김정은**총비서의 령도밑에 사회주의혁명과 건설사업에서 풍만한 성과를 달성하였다, 오늘 형제적인 조선인민은 김정은총비서를 수반으로 하는 조선로동당의 두리에 굳게 뭉쳐 부닥치는 난관을 이겨내며 사회주의강국건설목표를 향해 매진하고있다고 하면서 그는 훌륭한 이웃, 훌륭한 벗, 훌륭한 동지로서 이에 대해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하였다.

그는 습근평총서기와 **김정은**총비서께서는 여러 차례 력사적인 상봉을 진행하시였으며 여러가지 형식으로 긴밀한 래왕을 유지하면서 전통적인 중조친선협조관계를 력사의 새로운 시대에로 인도하신다고 지적하였다.

중조친선협조관계를 훌륭히 수호하고 훌륭히 공고히 하며 훌륭히 발전시키는것은 중국당과 정부의 확고부동한 방침이라고 하면서 그는 두 당, 두 나라 최고령도자들께서 이룩하신 중요공동인식을 적극 리행하여 전통적인 친선을 심화시키고 실무적협조를 확대하며 두 나라 관계가 보다 발전하도록 추동해나갈 용의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리룡남대사는 공화국창건기념일을 맞으며 우리 인민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온갖 시련과 난관을 이겨내며 사회주의강국건설을 위해 힘차게 전진하여온 자랑찬 로정을 긍지높이 돌이켜보고있다고 말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탁월한 령도가 있어 우리 인민은 국가의 전면적부흥을 안아오기 위한 투쟁에서 확실하고도 변혁적인 성과를 거두고있다, 우리 인민은 앞으로도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세련된 령도따라 조선로동당 제9차대회가 제시한 과업들을 철저히 관철하고 사회주의전면적발전을 위한 투쟁에서 계속 눈부신 성과를 이룩할것이다고 그는 언급하였다.

그는 형제적중국인민이 습근평총서기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중국공산당의 령도밑에 사회주의현대화강국을 전면적으로 건설하고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기 위한 거창한 위업수행에서 보다 큰 성과를 거두기 바란다고 지적하였다.



조중친선협조관계는 새로운 전략적높이에서 승화발전하고있으며 복잡다단한 국제정세속에서 두 나라의 주권과 안전, 발전리익을 굳건히 고수하고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는데 커다란 기여를 하고있다고 하면서 그는 사회주의를 핵으로 하는 전통적인 친선관계를 여러 분야에 걸쳐 활력있게 발전시켜나가는것은 우리 당과 정부의 확고부동한 립장이라고 강조하였다.

연회참가자들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건강을 축원하여, 존경하는 습근평동지의 건강을 축원하여 잔을 들었다. /조선중앙통신

붉은군대 군관이며 국제주의전사인 야꼬브 노비첸꼬명칭 두만강자동차다리 준공식 진행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로씨야련방사이의 다방면적인 협조와 교류가 포괄적인 전략적동반자관계, 불패의 동맹관계의 굳건한 반석우에서 날로 승화발전하고있는 속에 두 나라의 국경도시들인 라선시와 하싼을 련결하는 두만강자동차다리가 성과적으로 완공되여 뜻깊은 준공의 시각을 맞이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 김정은동지와 로씨야련방 대통령 울라지미르 울라지미로비치 뿌찐동지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두 나라 정부와 건설자들은 친선의 공고성과 미래지향성을 과시하고 량국인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할 일념으로 성심을 바쳐 불과 495일이라는 짧은 기간에 다리를 설계와 시공의 요구대로 훌륭히 일떠세웠다.

각종 운수수단들의 안전통행과 인원래왕을 보장할수 있는 두만강자동차다리가 완공됨으로써 조로 두 나라사이의 경제협조의 중요한 하부구조가 축성보강되고 인적교류와 관광, 상품류통을 비롯한 다방면적인 협력을 활성화해나갈수 있는 담보가 마련되였다.

조로친선관계사에 빛나게 아로새겨질 기념비적건축물이 붉은군대 군관이며 국제주의전사인 야꼬브 노비첸꼬의 이름으로 명명된것은 두 나라 인민의 선린우호관계를 진실한 동지적신뢰관계로 변함없이 강화발전시켜나가려는 량국지도부와 인민들의 확고부동



한 의지의 발현으로 된다. 붉은군대 군관이며 국제주의전사인 야꼬브 노비첸꼬명칭 두만강자동차다리 준공식이 7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경도시 라선시와 로씨야련방의 국경도시 하싼에서 동시에 진행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 총리 박태성동지와 로씨야련방 정부수상 미하일 울라지미로비치 미슈스찐동지가 평양과 모스크바에서 화상방식으로 준공식에 참가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 제1부총리 김덕훈동지, 조로정부간 무역경제 및 과학기술협조위원회 우리측위원장인 대외경제상 윤정호동지, 국토환경보호상 양영진동지, 라선시인민위원회 위원장 신창일동지, 외무성 부상 김정규동지, 관계부문 일군들, 건설자들, 라선시안의 근로자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우리 나라 주재 로씨야련방대사관 림시대리대사 울라지미르 또뻬하동지, 청진주재 로씨야련방 총령사 올레그 꼬쉐예브동지가 함께 참가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와 로씨야련방 국가가 주악되였다.

로씨야련방 정부수상 미하일 울라지미로비치 미슈스찐동지가 축하발언을 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 총리 박태성동지가 축하발언을 하였다.

두 나라 정부수반들의 지시에 따라 라선시의 준공식장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 제1부총리 김덕훈동지와 우리 나라 주재 로씨야련방대사관 림시대리대사 울라지미르 또뻬하동지가, 하싼의 준공식장에서 조로정부간 무역경제 및 과학기술협조위원회 로씨야측위원장인 자연부원생태학상 알렉싼드르 꼬즐로브동지, 로씨야련방 운수상 안드레이 니끼찐동지, 원동 및 북극발전상 알렉쎄이 체꾼꼬브동지와 로씨야련방주재 우리 나라 특명전권대사 신홍철동지가 준공테프를 끊었다.

준공을 축하하는 축포탄들이 터져오르고 참가자들의 열렬한 박수갈채속에 량측의 차행렬들이 개통된 다리를 통과하였다.

정부수반들은 결속발언에서 두만강자동차다리는 두 나라 친선의 새로운 상징, 자랑스러운 산아이라고 하면서 조로최고수뇌분들의 력사적인 상봉에서 이룩된 합의사항을 적극적으로 리행해나갈 량국정부의 확고부동한 립장을 표명하였다.

이어 준공식참가자들은 개통된 다리를 돌아보았다.

두만강자동차다리의 준공은 조로최고수뇌분들의 탁월한 선견지명과 전략적인도에 따라 각 분야에서의 호혜적인 쌍무교류와 장기적인 협조계획들을 설계하고 적극적으로 리행해나가는데서 의의깊은 계기로 된다. (끝)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성대표단 제 13 차 베이징향산연단에 참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성대표단이 중국에서 진행된 제 13 차 베이징향산연단에 참가하였다.

《안정에 관한 공동인식을 한데 모아 안전관리를 함께 추진하자》라는 주제로 열린 연단에는 세계 100 여개 나라와 지역, 국제기구의 대표단들과 전문가, 학자들이 참가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성대표단 단장인 국방성 부상 김강일동지가 17 일 제 3 차 전체회의에서 연설하였다.

그는 지배와 예속, 침략과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세계에서 자주적인 발전과 번영을 이룩해나가려는것은 인류공동의 념원이라고 하면서 우리 공화국이 세계적인 열점지역인 조선반도에서 항구적인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할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온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최근 미국과 그 추종세력의 날강도적이며 무제한한 지정학적탐욕과 힘의 람용으로 하여 세계평화와 안정의 근간이 심히 흔들리고있는 속에 조선반도지역에서도 핵을 공유하는 침략적군사쁠럭이 확대강화되고 핵사용을 전제로 하는 각양각태의 군사연습들이 공공연히 자행되여 우리 국가의 안전을 엄중히 침해하고있다고 그는 지적하였다.

그는 조선반도정세가 대결과 긴장격화의 악순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있는 근본원인은 오랜 세월 대조선적대시를 변함없는 국책으로 삼고 핵전쟁준비수준을 계단식으로 확대하고있는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무분별한 정치군사적대결책동에 있다고 주장하였다.

국가의 최고법, 헌법에 의하여 고착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핵보유국지위는 절대불퇴의 한계선이며 우리 공화국에 가장 적대적이고 가장 포악한 흉심을 가지고있는 적수국들은 우리의 정당한 자위적방위정책에 대한 시비와 비현실적인 《비핵화》망상을 걷어치워야 한다고 그는 강조하였다.

그는 적대세력들의 핵위협도수가 극대화되고 대결책동이 날로 적극화될수록 우리 공화국은 강력한 힘에 의한 안전보장, 평화수호의 원칙에 립각하여 자위적핵전쟁억제력을 끊임없이 확대강화해나감으로써 조선반도와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굳건히 수호해나갈것이라고 확언하였다.

국제사회가 조선반도를 비롯한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정세격화의 근원을 바로 보고 국제적정의를 수호하기 위한 공동의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고 하면서 그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정의와 자주성을 지향하는 세계 모든 나라들과의 선린우호관계를 발전

시키며 패권주의와 일방주의를 반대하고 공정한 국제질서를 수립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이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성대표단 단장은 중화인민공화국 국방부장을 만났다.

담화에서는 조중 두 나라 군대의 전략적의사소통을 긴밀히 하고 호상신뢰를 증진시켜 실질적인 협조를 확대하여 쌍방의 공동의 발전을 이룩하며 국제무대에서 패권주의와 강권정치, 신군국주의의 경향을 반대하기 위한 협동을 강화하는데서 나서는 문제들이 토의되였다.

한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성대표단은 제 14 차 중국국제국방전람회장을 참관하였으며 중화인민공화국 국방부가 차린 연회에 초대되였다. (끝)

빚더미우에 올라앉은 우크라이나

미국과 서방의 대로씨야전쟁도구로 전락되여 전란에 휘말려든 우크라이나가 엄청난 빚더미우에 올라앉았다.

８월 ３０일 로씨야의 따쓰통신이 우크라이나재정성의 자료에 기초하여 발표한 통계자료에 의하면 ８월말현재 이 나라의 채무액은 약 ２ １８０억~２ １９０억 US$에 달하였다.

우크라이나의 국가채무액은 매월 평균 ４０억~５０억 US$씩 늘어나고있으며 우크라이나인 １명당 차례지는 빚은 ２０２６년말에 ８ ５００US$, ２０２７년말에는 １만 ４００US$에 이르게 될것이라고 한다.

국제무대에서 영향력을 높여나가는 상해협조기구

얼마전 끼르기즈스딴의 수도 비슈께크에서 상해협조기구 수뇌자회의가 진행되였다.

회의에는 기구성원국들과 기타 여러 나라의 국가 및 정부수반들, 국제기구대표들이 참가하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절박한 국제 및 지역문제들에 대한 의견이 교환되고 정치, 안전, 경제, 인도주의를 비롯한 여러 분야에서의 협력과 단결을 강화할데 대한 문제, 복잡한 현 국제정세에 대처하여 기구성원국들이 단결하여 기구의 영향력을 높이고 세계의 평화를 위해 보다 큰 역할을 할데 대한 문제가 토의되였다.

중국의 습근평주석은 회의에서 연설하면서 발전도상나라들은 다극화를 추진하는 중요한 력량인것만큼 마땅히 국제문제에서 대표성과 발언권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로씨야의 뿌찐대통령은 기구가 지금 형성되고있는 다극세계의 독립적이고 영향력있는 중심의 하나로 발전강화되였다고 하면서 정치와 경제, 인도주의분야에서의 협력은 성원국들의 계획적이며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할것이며 유라시아대륙에 신뢰와 협조의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이바지할것이라고 말하였다.

회의에 참가한 성원국 국가수반들은 지금까지 기구가 이룩한 성과들에 대해 긍정하면서 상해협조기구가 지역의 안전과 번영을 위한 중요한 담보를 마련하고 세계경제발전을 추동하였다고 인정하였다.

올해는 상해협조기구가 창립된지 25돐이 되는 해이다.

2001년 6월 중국의 상해에서 창설된 상해협조기구는 다무적협조기구로서 성원국들사이의 신뢰와 선린우호관계를 발전시키고 정치, 경제, 군사 등 여러 분야에서 협조를 강화하는것과 함께 공정한 국제질서를 수립하는것을 기본사명으로 하고있다.

지난 25년동안 상해협조기구는 성원국들의 적극적인 노력에 의하여 발전잠재력이 큰 새로운 협조기구로 강화되였다. 창립초기에 성원국은 중국, 로씨야, 까자흐스딴, 끼르기즈스딴, 따쥐끼스딴, 우즈베끼스딴 6개 나라에 불과하였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인디아, 파키스탄, 이란, 벨라루씨를 망라하여 10개 나라로 늘어났다.

이밖에도 2개의 나라가 옵써버국가의 지위를, 15개의 나라가 대화동반자국가의 지위를 차지하고 기구사업에 적극 참여하고있다.

오늘 상해협조기구는 세계적인 문제들에 공동으로 대처해나가고있으며 성원국들사이의 다무적 및 쌍무적협조를 보다 강화하여 공동의 발전을 이룩하기 위해 노력하고있다.

지난 4월 끼르기즈스딴에서 진행된 상해협조기구 성원국 국방상회의에서는 기구창립 25돐을 새로운 출발점으로 삼아 방위안전협조를 심화시키며 각국의 전략적의사소통을 강화하고 실용적인 협조를 추진하여 지역의 안정을 수호할데 대하여 강조되였다.

상해협조기구는 국제문제 특히 군사전략적문제들을 다루는데서 자기의 역할을 높여나가고있다. 성원국들사이의 협조와 교류도 활발히 벌어지고있다.

지난해 로씨야와 상해협조기구 성원국들사이의 무역액은 4 000억 US$를 넘어섰다.

기구성원국들사이의 호상결제에서도 민족화폐가 광범하게 활용되고있다. 로씨야와 기구성원국들사이의 금융거래에서 민족화폐리용률은 98%이상에 달한다고 한다.

분석가들은 상해협조기구가 국제무대에서 자기의 영향력을 높이면서 국가간 및 지역간 협조와 단결을 강화하는데 기여하고있다고 평하고있다.

습근평 브릭스국가 지도자 제18차 회담 제1단계 회의 참석 및 중요연설 발표

현지시간으로 12일 오후, 국가주석 습근평이 뉴델리에서 브릭스국가 지도자 제18차 회담 제1단계 회의에 참석했다.

습근평은 《시대의 책임을 함께 짊어지고 용감하게 선봉 력량이 되자》라는 제목으로 중요연설을 발표했다.

현지시간으로 12일 오후, 국가주석 습근평이 뉴델리에서 브릭스국가 지도자 제18차 회담 제1단계 회의에 참석했다.

회의기간, 브릭스 지도자들이 단체사진을 찍었다. 신화사 기자 왕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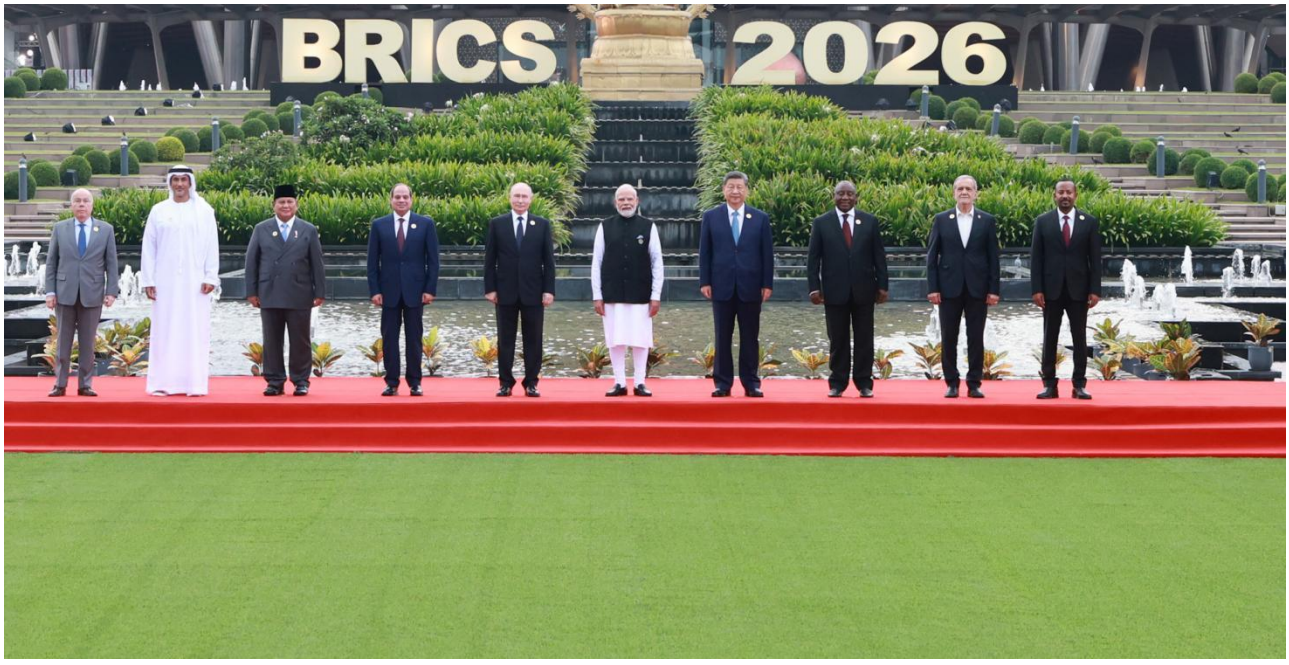
[뉴델리 9월 12일발 신화통신 기자 손승빈 양의군] 현지시간으로 12일 오후, 국가주석 습근평이 뉴델리에서 브릭스국가 지도자 제18차 회담 제1단계 회의에 참석했다.

로씨야 대통령 푸틴, 남아프리카 대통령 라마포사, 이란 대통령 페제시키안, 애급 대통령 엘시시, 인도네시아 대통령 프라보워, 에티오피아 총리 아비, 아랍추장국련방 아부다비 왕세자 칼리드와 브라질 외무장관 등이 참석했다. 인도 총리 모디가 회의를 사회했다.

습근평은 《시대 책임을 함께 짊어지고 용감하게 선봉 력량이 되자》를 제목으로 중요연설을 발표했다.

습근평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올해는 브릭스국가 협력 20돐이 되는 해이다. 지난 20년간 브릭스 협력 기제는 끊임없이 발전하고 성장하여 왕성한 생기와 활력을 보여주었으며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신흥시장과 발전도상국 협력 플래트홈이 되였다. 이는 자립자강의 20년으로 브릭스국가들은 자체의 국정에 부합되는 발전의 길을 적극 모색했으며 신흥시장과 발전도상국 련합 자강의 모범이 되였다. 이는 운명을 같이한 20년으로 브릭스국가들은 국제 금융위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전염병, 기후변화 등 도전에 함께 대응하고 글로벌 남방국가의 공동 리익을 확고히 수호하며 세계에 안정성과 긍정에너지를 제공했다. 이는 성과가 풍부한 20년으로 브릭스국가들은 력사적인 확충을 실현했고 전방위적, 다차원적인 협력 구도를 구축하며 《대 브릭스 협력》 고품질 발전의 새로운 단계에 들어섰다.



습근평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당면 백년 변국이 가속화되고 글로벌 남방국가들이 뚜렷이 성장하며 세계 다극화는 거스를 수 없게 되였다. 이와 동시에 일방주의, 강권정치의 역류가 몰아치고 다자주의와 국제질서가 충격을 받고 있으며 평화적자, 발전적자, 안전적자, 치리적자가 줄지 않고 늘어나고 있다. 브릭스국가들은 력사의 정확한 편에 확고히 서서 용감히 시대의

선봉이 되고 국제질서가 더욱 공정하고 합리한 방향으로 발전하도록 이끌며 손잡고 인류운명공동체 건설을 추동해야 한다.

첫째, 혁신발전을 촉진하는 선봉이 되여야 한다. 주동권을 확고히 파악하고 인공지능 협력을 강화하며 오픈소스 개방(开源开放), 협력 공유를 격려하고 실무 협력이 더욱 새롭고 높은 곳으로 도약하도록 추동해야 한다. 브릭스 각국이 세계 인공지능협력기구에 적극 참여하는 것을 환영한다. 중국측은 브릭스국가들 인공지능을 기반한 신형공업화 추진을 제안했으며 여러측과 함께 더욱 많은 연구개발 및 응용성과를 창출하고 산업사슬, 공급사슬 협력을 심화할 용의가 있다.

둘째,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는 선봉이 되여야 한다. 공동, 종합, 협력, 지속 가능한 안전관을 견지하고 랭전사유와 진영대립을 반대하며 타국의 주권 침범과 내정 간섭을 반대하고 열점문제 해결에 건설적으로 참여하며 지엽적인 문제와 근본적인 문제를 함께 다스리는 방식으로 브릭스만의 독특한 기여를 해야 한다. 중국측은 브릭스 성원국과 함께 중동 해만지역의 평화와 안녕을 실현하기 위해 응당한 역할을 발휘할 용의가 있다.

셋째, 문명의 상호 참조를 추동하는 선봉이 되여야 한다. 전 인류 공동가치를 고양하고 문명교류와 상호참조, 화합공생을 창도해야 한다. 브릭스국가 인문교류포럼을 잘 개최하고 국정운영의 경험을 공유하여 국가간 관계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 긍정에너지를 결집해야 한다. 문화, 관광 교육 등 협력을 심화하고 청년교류를 강화하며 대중의 왕래를 상시화하고 서로 리해하고 친밀해지도록 촉진해야 한다.

넷째, 글로벌 치리를 개혁, 보완하는 선봉이 되여야 한다. 국제관계 민주화 대세에 순응하고 보다 공정하고 합리한 글로벌 치리 체계의 구축을 추동하며 유엔의 권위를 수호해야 한다. 세계무역기구를 핵심으로 하는 다자무역 체제를 지지하고 모든 보호주의 조치를 배척해야 한다. 인터넷, 우주공간, 심해 등 새로운 령역의 글로벌 치리를 선도하고 글로벌 남방국가의 발언권을 제고해야 한다.

습근평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20년의 어려움과 시련을 함께 이겨내면서 단결과 협력은 시종 브릭스 사업 발전의 힘의 원천이였다. 진솔하게 대하고 공통점을 찾고 차이점을 보류하며 서로의 핵심적 관심사를 존중하고 소통과 대화를 통해 상호 리해를 증진하고 모순과 의견 차이를 적절하게 처리하여 브릭스 협력의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확보해야 한다. 중국은 래년에 브릭스 주석국을 이어받게 되고 브릭스국가 지도자 제19차 회담을 주최하게 된다. 중국측은 여러측과 공감대를 모으고 미래를 개척하여 브릭스 협력의 3번째 《황금의 10년》과 번영과 진보의 밝은 미래를 함께 열어나갈 용의가 있다.

회의에 참석한 각국 지도자들은 브릭스 협력과 국제지역 문제에 대해 깊이있게 의견을 나누었다.

각측은 브릭스 설립 20년간 이룩한 발전성과를 높이 평가하고 나서 브릭스 기제가 광범위한 대표성과 거대한 발전 잠재력을 갖고 있다며 다음과 같이 표했다.

지연 충돌이 격화되고 일방주의가 대두하는 데 직면하여 브릭스국가는 글로벌 남방국가를 위해 목소리를 내고 다자주의를 수호하며 유엔의 핵심적 역할을 지지하고 각국의 주권 평등을 수호하며 국제법을 준수하고 타국 내정에 대한 간섭을 반대하며 자유무역을 지지하고 글로벌 도전에 공동으로 대응할 책임이 있다. 각측은 응당 브릭스정신을 견지하고 각 분야의 협력을 심화하며 경제의 탄력성을 강화하고 더욱 공평하고 포용적인 국제질서의 형성을 추동하며 안전하고 번영한 다극세계를 건설해야 한다. 각측은 중국이 브릭스기제의 발전과 장대에 대한 중요한 공헌을 높이 평가했고 중국이 래년 주석국으로서 브릭스국가 지도자 제 19 차 회담을 잘 개최하여 공동으로 브릭스 협력을 새로운 단계에로 끌어올리는 것을 지지했다.

회의에서는 《브릭스국가 지도자 제 18 차 회담 뉴델리선언》을 통과했다.

회의기간, 브릭스국가 지도자들은 브릭스 설립 20 돐 사진전을 참관하고 함께 나무를 심었으며 단체사진을 찍었다.

채기, 왕의 등이 상기 활동에 참가했다. /延边日报

쁄럭뿔가담운동창립 ６５돐기념 고위급회의 진행

쁄럭불가담운동창립 ６５돐기념 고위급회의가 １일 쓰르비아의 베오그라드에서 진행되였다.

회의에는 많은 나라와 지역의 수십개 대표단이 참가하였다.

개막연설에서 쓰르비아대통령은 다무주의와 주권평등, 국제법존중을 지지하는 립장을 밝히면서 쁄럭불가담운동이 다무주의의 중요한 력량으로 된다고 강조하였다.

회의참가자들은 발전도상나라들이 자주적이며 균형적인 국제협조를 계속 강화하여야 할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레로와 기후변화 등의 도전들에 대처하여 남남협조를 적극 발전시킬것을 호소하였다.

쁄럭불가담운동은 반제자주의 기치밑에 １９６１년 ９월 창립되였다.

군국주의부활에로 끊임없이 질주해온 일본의 행적

조선전쟁을 호경기로 삼고

일본군국주의가 패망하면서 그의 경제적기초는 여지없이 황폐화되였다.

１９４５년 １１월 공업생산량은 전시 최고수준의 ９%로 떨어졌다.

일반국민들의 생활형편은 극도의 령락상태에 놓이게 되였다.

당시 미제는 일본군국주의를 재생, 재무장시켜 그를 아시아침략의 돌격대, 길잡이로 써먹을것을 계획하였다. 미국은 각이한 방법으로 일본군수산업의 생산토대를 보존하였으며 그 복구확장을 위하여 적지 않은 액수의 자금을 투자하였다.

그리하여 일본독점자본은 １９４０년대말에는 기간공업부문을 발판으로 다시 일떠서게 되였다.

일본은 군국주의의 부활을 위한 물질적토대를 야금야금 쌓아나갔다.

특히 미제가 도발한 조선전쟁으로 하여 일본의 군수산업은 패망전의 수준을 훨씬 릉가하는 단계에로 올라설수 있게 되였다.

조선전쟁이 발발하자 일본정부는 구일본군무력을 적극적으로 참전시켰다.

영국 로이터통신은 전쟁개시 한달후 벌써 조선에 파견되여 미군과 함께 군사작전에 참가한 일본군인은 약 2만 5 ０００명이나 된다고 폭로하였다.

이밖에도 후방에서 미군에 대한 각종 지원사업에 종사한 일본청장년들은 ２０여만명에 달하였다고 한다.

일본은 자국령토를 미군의 병참기지, 보급기지, 수리기지로 내맡겼다.

미제가 조선전선에로의 출동을 위하여 일본에서 리용한 기지시설들은 １９５３년 1월현재 ２２０개의 병영과 ４４개의 비행장, ３０개의 항만, ７９개의 련습장, １１６개의 통신시설 등 모두 ７３０여개나 되였다고 한다.

１９５０년 7월부터 그해 １０월까지 일본은 조선전쟁에 ２４８척의 선박을 동원하여 근 １００만t의 미군수물자를 수송하였다.

일본은 미국의 병기창노릇도 하였다. 무기, 탄약을 공급해주고 파괴된 무기와 전투기재들을 수리해주어 미군의 군사작전을 적극 보장해주었다.

조선전쟁 전 기간 일본의 군수공장들이 미제의 《특수주문》을 받고 미군에 공급한 군용자동차, 장갑차, 비행기, 저격무기 등과 의료품, 식료품의 총량은 무려 ２３억~２４억 US$분에 달하였다.

미국의 한 신문이 폭로한데 의하면 조선전쟁개시후 1년동안에 조선에서 파괴된 자동차의 ８４%, 땅크의 ３８%, 각종 포의 ６８%, 저격무기의 ７０%가 일본의 공장들에서 수리되였다.

일본은 조선전쟁기간 우리 인민의 피의 대가로 막대한 전쟁리윤을 얻었고 경제침체에서 벗어나 고도경제성장의 재정적기초를 마련할수 있었다.

조선전쟁 첫해에 일본의 3대강철회사가 그 전해의 ２０여배, 3대광업회사가 무려 １００배이상에 달하는 리윤을 올린것을 비롯하여 일본의 수백개 기업체들의 리윤률은 １９５０년 상반년에 １８. 3%였던것이 하반년에는 ７０. 3%로 급격히 증가되였다.

도요다자동차회사는 미군의 군용자동차주문으로 거의 3억￥을 벌어 파산의 위기를 모면하고 일본의 5대자동차독점체의 대렬에 들어설수 있었다.

일본경제의 전반이 군수생산에 집중되였다.

제강업, 조선업 등 기간공업부문의 업체들이 군수산업의 중심에 서게 되고 농업부문은 군량생산을, 운수부문은 군수물자와 병력의 수송을 각각 보장하는 등의 과정을 통하여 경제전반이 군수의존도가 높아지는 방향으로 확대되였다.

하기에 일본의 대독점자본가들은 미제가 조선전쟁을 도발하자 《신이 내려준 행운》, 《하늘의 도움》이라고 환성을 올리였던것이다.

일본은 조선전쟁기간 침략무력을 들이밀고 미제의 《특수주문》을 받아 무기와 군사장비들을 생산보장해줌으로써 조선인민앞에 또다시 씻을수 없는 죄악을 저질렀으며 막대한 돈벌이를 하고 군국주의부활, 재무장의 물질적토대를 강화할수 있었다.



애국명장 리순신

(전호에서 이음)

9월에는 전라우도의 수군과 함께 적선 100여척을 소멸해 버림으로써 임진조국전쟁초기 일제침략자들의《수륙병진》계획을 파탄시키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1593년 3도수군통제사로 임명된 후부터 리순신은 조선수군을 총 지휘하게 되였다.

우리 나라를 불의에 침공한 왜놈들은 륙군을 기본력량으로 하고 수군으로 조선수군을 쉽게 제압하고 서해로 돌아와 륙군과 합세하는 《수륙병진》전략을 세우고 강대한 수군력량을 남해로 들이밀었다. 그러나 리순신장군이 이끄는 조선수군은 기묘한 전법과 거북선을 앞세운 대담한 공격으로 싸움마다에서 수많은 적선을 격침시키며 적의 기도를 산산이 짓부셔버렸다.

어쩔수 없게 된 왜놈들은 우리 나라의 남해안 좁은 지역에 몰켜있으면서 강화담판을 제기해오는 한편 재침준비를 다그치고있었다. 1593년 1월부터 1597년 1월까지 쌍방간에 큰 싸움은 없었으나 왜놈괴수들은 리순신장군을 모해할 음모를 꾸미기 시작하였다. 놈들은 요시라라는 간첩을 내세워 조선에 머물러있는 왜놈괴수 가등청정의 움직임에 대한 거짓정보를 발설하면서 수군과 리순신을 없애보려고 하였다.

어리석은 조선관리들은 왜놈들의 잔꾀에 넘어가 임금까지 충동질하여 장군에게 수군을 이끌고 부산앞바다로 나가라로 불같은 독촉을 내리였다. 적후에서 활동하는 인민들을 통해 적들의 움직임을 손금보듯하고있던 리순신장군은 임금의 어지라 할수없이 함대를 이끌고 가덕도 앞바다에 나가 위력을 시위하고 돌아왔다.

그러나 조정에서는 1597년 1월 어지를 어긴 리순신장군을 3도수군통제사의 직책에서 철직시키고 큰칼을 씌워 서울로 압송하였다.

억울한 루명을 쓰고 형틀에 매워 곤장을 맞으면서도 장군은 요시라는 간첩이고 이는 적들의 음모가 분명한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싸움을 걸지 않았다는 말밖에 더는 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 말이 그의 무죄를 증명할수 없으므로 어차피 형벌을 면할수 없게되였다.

리순신장군의 충실한 부하들이 이 사정을 알고 무죄를 증명하기 위한 여러가지 자료를 만들어 옥으로 찾아갔다. 이윽하여 옥창밖으로 그들을 바라보던 리순신이 이렇게 말하였다. 《고맙네. 하지만 적후에서 나라를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일해오는 우리 사람들을 나하나를 위해 드러내게 되면 항차 적정은 어떻게 알고 싸움을 한단말인가. 그건 나하나를 살리는 방도이지 나라를 위하는 방도는 아닐세. 더 달리 생각말고 없애버리게.》 그리고 함께 온 아들에게 당파싸움에 눈이 어두운 놈들이 자료를 내놓았다고 하여 나를 석방시키거나 안내놓았다고 하여 죽이지는 못한다고 하며 꼭 시킨대로 하라고 당부하였다.

1597년 간신인 원균의 모해와 왜적의 간교한 술책에 넘어간 봉건정부는 《어명

집행불법죄》라는 황당한《죄》를 들씌워 그처럼 싸움마다에서 위훈을 세운 리순신장군을 체포하여 감옥에 걷어 넣었다가 한개 병사로 철직시켜 싸움터로 내보냈다.

그해 7월에 무능한 봉건통치배들이 3도수군통제사로 내세운 원균은 일본간첩 요시라의 모략에 빠져 칠천도해전에서 심대한 타격을 받아 리순신장군이 애써 꾸려놓은 조선수군을 거의 전멸상태에 몰아넣었다.

그리하여 봉건정부에서는 하는수없이 그해 8월초에 리순신장군을 다시 3도수군통제사로 임명하고 수군을 재건할 과업을 주었다. 이때 그가 물려 받은것이란 12척의 배와 120여명의 군사뿐이였다. 하지만 리순신장군은 불타는 애국의 마음을 안고 군사들을 불러 일으키고 군사장비들을 개건확장하였다.

1597년 9월 리순신장군은 몇척 안남은 싸움배들을 모아 조선서해로 기여 들려는 적의 수군무력 330여척을 전라남도 해남과 진도사이의 좁은 물목인 울돌로 유인하여 드세찬 공격을 들이댐으로써 30여척의 적선과 4천여명의 적병을 살상하였다.

리순신장군은 임진조국전쟁을 결속하는 로량대해전 (1598년 11월 19일)에서 총퇴각하는 왜적의 마지막주력함대와 해전을 벌려 200여척의 적선과 근 2만명의 왜놈들을 바다에 수장해버렸다.

가렬처절한 격전장에서 한몸의 위험을 무릅쓰고 뛰여 난 지략으로 함대를 지휘하던 리순신장군은 전투가 승리로 끝날 무렵 적의 류탄에 맞아 애석하게도 생애를 마치였다.

리순신장군의 애국적활동은 계급적 및 시대적 제약성을 가지고 있었으나 그가 전투마다에서 승리하여 빛나는 공훈을 세울수 있은것은 그가 평소에 백성들을 사랑했고 백성들이 그를 한결같이 도와나섰기때문이라고 한다.

일본 조선연구소에서 출판한 책에는 로일전쟁(1904-1905)당시 일본에서 군신으로 떠받들리우던 도고(원수, 해군제독)가 어느 한 모임에서 1805년 트라팔갈해전에서 프랑스-에스빠냐련합함대를 격파하여 명장으로 알려 진 영국의 해군제독 넬슨에 대비할만한 인물이라는 칭찬을 받았을때 이렇게 실토하였다. 《칭찬을 받아서 고마우나 나도 말한다면 넬슨이란 그리 대단한 인물이 아니다. 진짜 군신이란 칭호를 받을만한 제독이 있다면 그것은 조선의 리순신장군쯤으로 될것이다. 리순신장군에 비하면 나는 하사층에도 들지 못하는 사람이다.》

이렇듯 리순신장군은 세계최초의 철갑선, 거북선을 만들어 바다싸움에서 특출한 전법으로 왜적을 물리치고 나라와 민족의 존엄을 떨친 세계가 인정하는 명장이였다. (끝)



재침의 온상-야스구니진쟈

일본 도쬬에는 야스구니진쟈라는것이 있다. 명치유신때부터 왜왕의 칙령에 따라 해외침략전쟁들에서 죽은자들을 제사지내는 곳이다.

청일전쟁, 로일전쟁, 중일전쟁, 태평양전쟁 등 일제가 도발한 침략전쟁들에서 《공》을 세웠다는자들의 위패와 명부가 여기에 보관되여있다.

진쟈에 있는 유취관에는 제2차 세계대전까지의 침략전쟁들을 극구 미화, 찬양하는 자료들과 함께 《야스구니의 신들》이라는 간판밑에 전장에서 황천객이 된자들의 사진이 수천장이나 전시되여있다. 패망이전에 일제는 전쟁터에서 죽은자들을 《추모》하는 《국가제전》을 이곳에서 벌리군 하였다.

일본국민들은 이 요란한 행사들을 통해 군국주의침략사상을 주입받았다.

패망후에도 야스구니진쟈는 반동지배층의 비호와 후원을 받으며 온 일본땅에 군국주의사상을 전파시키는 온상으로 되여왔다.

일본의 극우익세력은 특급전범자들을 야스구니진쟈의 명부에 올리기 위해 음으로양으로 책동하였으며 1978년 가을 마침내 도죠 히데끼를 비롯한 14명의 특급전범자들을 비밀리에 합사하였다. 인류의 저주와 규탄을 받는 특급전범자들을 《나라를 편안케 한 신》, 《애국자》로 받들고 제사를 지낸다는것자체가 과거죄행을 인정하지도 반성하지도 않으며 침략야망을 기어이 실현하겠다는 야욕을 공공연히 드러내놓은것이다.

한동안 도적고양이처럼 국제사회계의 눈을 피해가며 야스구니진쟈를 참배해오던 일본반동들은 1981년에 《모두가 야스구니진쟈를 참배하는 국회의원모임》이라는 초당파적인 단체를 조직하고 집단적인 참배놀음을 년례행사처럼 벌리기 시작하였다.

1985년에는 나까소네가 패망후 처음으로 일본수상이라는 공식자격으로 야스구니진쟈를 참배하였다. 2001년 8월 13일에는 당시 수상이였던 고이즈미가 패망일을 앞두고 야스구니진쟈를 공식참배하여 군국주의광풍을 일으켰다.

그의 공식참배는 2006년까지 6차에 걸쳐 해마다 강행되였다.

2013년 8월에는 당시 수상이였던 아베가 내각성원들이 야스구니진쟈를 참배하는것은 《주권국가 국민의 권리》라고 망발하였다. 그리고는 그해말 야스구니진쟈를 참배하고 그후 해마다 봄철대제와 가을철대제, 패망일에 꼭꼭 제물을 봉납하였다.

아베의 이러한 행태를 그후의 스가, 기시다 등 후임자들도 답습하였다.

지난해 수상자리에 올라앉은 다까이찌는 올해 4월 야스구니진쟈에 공물을 봉납한데 이어 패망일인 8월 15일에는 전국전몰자추도식에 참가하러 가던중 어느한 주차장에서 진쟈를 향해 요배하는 추태를 부리였다.

이러한 망동은 피로 얼룩진 과거에 대한 전면부정인 동시에 일본사회에 복수주의를 선동하여 《대동아공영권》의 헛된 꿈을 기어이 이루어보려는 위험천만한 군국주의광증의 발로이다. 일본반동들은 이를 통해 침략전쟁을 찬미하고 전범행위와 특대형반인륜죄악의 책임을 부인하며 전쟁원흉들을 《영웅》으로 떠받드는 저들의 그릇된 군국주의력사관을 새세대들에게 끊임없이 주입하고있다.

모든 일본인들이 야스구니진쟈에서의 참배를 통해 군국주의사상에 물젖게 함으로써 임의의 시각에 해외침략에 내몰자는것이 일본반동들이 노리는 기본목적이다.

일본반동들이 국제사회의 반발에 대해 참배가 《력사와 전통, 관습에 따른것》이므로 그에 대해 주변나라들이 이러쿵저러쿵할수 없다는 궤변을 늘어놓고있는것은 그야말로 파렴치의 극치이다. 야스구니진쟈를 발원지로 하는 신군국주의사조가 온 렬도를 휩쓰는 속에 일본에서 재무장화와 재침야망실현책동이 더욱 본격적으로 다그쳐지고있다.



말소리흐름과 문장의 발음

억양은 단어들을 련결시켜 하나의 통일된 발음덩어리로 묶어주며 문장을 하나의 전일적인 발음단위로 만들고 그것을 다른 문장과 구획지어주며 문장의 내용을 현실적인 것으로 완결시켜주는 운률적인 발음요소이다. 억양은 발음의 성격을 특징짓는 가장 뚜렷하고 중요한 요인이다.

억양은 사람들의 생활감정과 현실의 변화에도 잘 순응한다.

억양은 문법적기능과 표현적기능을 수행한다. 억양은 단어나 단어결합에 진술성을 부여하여 완결된 사상을 나타내는 문장으로 되게 한다.

○ 누구는 노래를 한다. 누구는 춤을 춘다. 모두들 흥에 겨워 돌아갔다.

우의 례문에서 《누구는 노래를 한다》나 《누구는 춤을 춘다》는 문법적으로는 완결된 문장의 형식을 갖추었지만 끝맺음의 억양이 부여되지 않았으므로 독립적인 하나의 소리동강으로 되지 못하고 소리동강의 구성요소로 되는 소리매듭으로만 된다. 억양의 완결은 《모두들 흥에 겨워 돌아갔다》에서 이루어지며 이때에야 비로소 완전한 문장으로 완결된다.

억양은 술어가 없는 문장이나 하나의 단어로만 된 문장, 어순이 뒤바뀐 문장도 진술성을 나타내는 하나의 문장으로 되게 한다.

○ 만선의 보고는 당중앙에, 바다향기는 온 나라에!

○ 물불을 가리랴 당의 부름에!

억양은 문장들의 갈래를 구별해준다. 같은 문법적형태를 취한 문장이라도 어떤 억양으로 발음하는가에 따라 알림문으로 될수도 있고 물음문으로 될수도 있으며 시킴문으로 될수도 있다.

○ 학교에 가요. (알림, 말끝을 내림)

학교에 가요? (물음, 말끝을 올림)

학교에 가요! (시킴, 말끝을 올리다가 내림)

억양은 문장안의 단어들의 결합구조를 명백히 하고 단어의 쓰임을 분명히 해주는 작용도 한다. 문장에서는 끊기를 어디에 주는가에 따라 문장안의 단어들의 결합적의미가 달라진다.

○ 영희는 영수와/ 영철이를 만났다. (영수와 함께 영철이를 만났다.)
영희는/ 영수와 영철이를 만났다. (영수도 만나고 영철이도 만났다.)
억양은 문장에서 이야기되는 초점을 뚜렷하게 제시해주는 정보전달의 기능을 수행한다.
○ 선생님이 래일 기차로 평양에 도착하신답니다. (초점: 언제?)
선생님이 래일 기차로 평양에 도착하신답니다. (초점: 어느 통로로?)
선생님이 래일 기차로 평양에 도착하신답니다. (초점: 어디에?)
억양은 표현적기능을 수행하며 말하는 사람의 감정과 정서를 나타낸다.
기쁘고 즐거운 감정상태임을 나타낼 때에는 밝은 소리색갈과 비교적 빠르게 그리고 말끝을 약간 높이면서 말하며 슬픔과 괴로움의 감정을 표현하는 경우에는 어두운 소리색갈로 비교적 느리게 그리고 말끝을 낮추는 조용한 어조로 말한다.
억양은 대화의 환경에 따라 달라지는 말하는 사람의 태도와 립장을 나타내며 이야기의 내용에 따라서도 다양하게 표현된다.
대화상대와 대화의 형식, 대화장소와 분위기, 대화상대방과의 거리와 같은 대화환경에 따라 말의 속도, 소리빛갈과 같은 억양의 구성요소들이 적절하게 선택되여 리용된다. 다급한 정황이나 속도감이 있는 장면을 나타내는 말에서는 말의 속도가 빨라진다. 그 반대의 경우에는 속도가 떠진다. 무게있는 대상의 말이나 행동을 나타낼 때에는 말의 속도도 떠지고 낮고 굵은 소리로 발음하지만 작고 귀여운 대상의 말이나 행동을 묘사할 때에는 조금 빠르면서도 밝고 가벼운 소리로 발음하게 된다.

캄 보 쟈



캄보쟈왕국은 동남아시아반도에 위치하고있으며 남부는 타이만과 면하고 동, 북, 서쪽은 웰남, 라오스, 타이와 국경을 접하고있다. 면적은 18만1035 ㎢ 이며 인구는 약 1728만명이다.
전국을 24개 성과 1개 직할시(프놈 뻰)로 나누며 수도는 프놈 뻰이다. 공용어는 크메르어이다.
령토의 대부분이 평원으로 이루어져있고 동, 서, 북 세면이 산지와 고원으로 둘러싸여있다. 중부평원은 해발 200 m 이하의 쌉(Sap)호주변의 충적평원과 메콩강삼각주로 이루어졌는데 국토면적의 90%를 차지한다.
평원에는 소택지들이 많다. 주요한 강은 메콩강이다. 쌉호는 메콩강의 흐름량을 조절하는데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있다.
평원북면의 당렉(Dangrek)산줄기는 동서방향으로 뻗어있는데 평균해발높이는 500 m 이고 삼림이 무성하여 전국 삼림면적의 3분의 1을 차지한다. 서북에서 동북으로 뻗은 산줄기의 오랄(Aural)산은 해발높이가 1813 m 메터로서 이 나라에서 제일 높은 산이다. 기후는 열대계절풍기후로서 기온이 높고 비가 많이 온다. 5월부터 10월은 장마철이고 11월부터 다음해 4월까지는 가물철이다. 년강수량은 약 2000 ㎜인데 10월의 강수량이 제일 많고 12월부터 3월까지의 강수량은 200 ㎜도 안된다.

인구의 다수를 차지하는 크메르족(80%)외에 라오족, 타이인, 웰족, 짬족, 중국인 등 20여개의 소수민족으로 이루어져있다.

아시아대인종 동남아시아인종에 속하는 크메르족은 외래이주민과 토착민들이 장기간 융합되여 이루어진 민족이다. 오스트로-아시아어족 몽-크메르어군에 속하는 크메르어로 말한다. 캄보쟈에서는 기원초부터 크메르족들이 살아왔으며 오랜 력사적과정에 그들에 의하여 1세기에 푸난(Funan)국가를 세웠다, 2세기부터 배를 타고 말라이반도와 중국, 인디아 등 나라들과 무역을 진행하였다. 후에 나라이름을 《쩬라》Chenla)로 고쳤다가《캄보쟈》라고 하였다. 국내의 기본주민이 크메르족이였으므로 나라이름을《크메르》라고도 하였다. 7세기에 문자를 창조하였다.

9~14세기는 크메르왕조가 력사상 국력이 가장 강한 전성기로서 이 시기에 문화가 발전하였으며 앙코르에서는 앙코르문명이 창조되고 앙코르와트도 12세기에 세워졌다.

19세기중엽 프랑스의 식민지로 되였으며 제2차 세계대전시기 일본에 점령당하였다. 일제가 패망하자 프랑스식민주의자들은 다시 캄보쟈에 쳐들어왔다.

1953년 11월 9일 캄보쟈왕국은 독립을 선포하였으며 1954년에 프랑스군이 철수하였다.

크메르족의 대부분은 캄보쟈에서 살고 소수가 웰남, 타이, 라오스에서 살고있다. 캄보쟈에서 살고있는 크메르족의 총인구수는 약 1382만명이다

캄보쟈국적을 가진 주민전체를 캄보쟈인이라고 한다. 주민들은 불교를 믿는다.

지하자원으로는 석유, 천연가스, 금, 철,알루미늄 등이 있다.

삼림피복률은 61%로서 삼림자원이 풍부하고 희귀한 목재와 각종 참대가 자라고있다.

수력자원이 풍부하다. 쌉호는 동남아시아에서 제일 큰 담수호로서 물고기 자원이 풍부하다. 서남연해는 중요한 어장으로서 물고기와 새우가 많이 잡히고있다.

캄보쟈는 전통적인 농업국으로서 농업이 나라의 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

농업에서는 벼농사와 과수업, 공예작물재배, 축산업 등 여러가지가 있으나 기본이 알곡생산이다. 복장제조업과 건축업이 공업의 기둥을 이룬다. 고유한 수공업으로 철가공, 죽기생산, 방직, 보석가공, 조각, 공예 등이 유명하다.

교통은 공로운수가 위주이고 철도는 수도에서 타이로 가는 철도와 시하누크항으로 가는 두개래가 있는데 총길이는 655km 이다.

캄보쟈에서는 9년제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사회경제생활의 발전과 함께 여러 부문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많아졌다.

캄보쟈는 불교를 국교로 하고있기때문에 도처에 절이 있다. 크메르족은 소승불교를 믿는다. 불교사원과 불탑들은 지금도 여전히 민족건축의 주요구성부분으로 되고있다. 불교사원은 종교활동의 거점인 동시에 교육거점이기도 하다. 중이 많고 그 세력도 크며 사회적으로 존경을 받고있다. 총각아이들은 일정한 나이에 이르면 머리를 깎고 절에 들어가 3달동안 중생활을 하는것이 풍습으로 되여있다.

크메르족은 일반적으로 온순하고 례절이 밝은 민족으로 알려졌다. 인사할 때는 두손을 모아 이마앞에 올리고 머리를 약간 숙인다. 크메르족의 민속놀이들은 그 종류가 많으며 독특하다. 크메르족은 궁중무용을 위주로 하는 전통예술을 좋아한다.

1976년에 나라이름을 민주주의캄보쟈로 고치였다.

1991년 7월 시하누크가 캄보쟈전국최고위원회주석으로 선거되였으며 1993년에 군주립헌제도를 회복하고 나라이름을 캄보쟈왕국으로 고치였다.

1964년 12월 20일 우리 나라와 대사급외교관계를 맺었다.

가을철 자주 먹어야 하는 4가지 《뿌리채소》!



가을이 되면 날씨가 점차 서늘하고 건조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입이 마르고 피부가 당기는 증상을 느끼며 심지어 마른기침이 나고 가래가 적으며 대변이 건조해지는 경우도 발생한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가을건조(秋燥)》이다.

이때 뿌리채소를 많이 먹는 것이 좋다. 땅속에서 자라 토양 속의 풍부한 영양분을 듬뿍 흡수한 뿌리채소는 자연이 선사한 건조함을 달래주는 《보물》이다. 따라서 《가을에 뿌리를 먹으면 인삼보다 낫다》는 민간 속담도 있다. 다소 과장된 표현이지만 뿌리채소가 가을 식단에서 차지하는 중요한 지위를 잘 보여준다.

특히 다음과 같은 뿌리채소들은 자주 먹을 것을 권장한다.

련근(莲藕)—열을 내리고 갈증을 멈춘다

영양학적 관점에서 련근은 수분이 많고 에너지가 낮으며 식이섬유가 풍부하다. 그중 100g 당 불용성 섬유질이 무려 2.2g 에 달해 셀러리(2.2g/100g) 등 록색 잎채소와 견줄 수 있다. 따라서 련근을 일정량 섭취하면 대변을 원활하게 하고 변비를 예방할 수 있다.

마(山药)—진액을 생성하고 폐를 보익한다

마는 《약식동원》의 전형으로 성질이 평아하고 맛이 달며 비장, 폐, 신장 경락에 들어가 삼초(三焦)를 동시에 보강할 수 있어 가을철 《온화한 보충(平補)》의 좋은 식재료이다. 중의학에서는 비위를 건강하게 하고 위를 보양하며 진액을 생성하고 폐를 보익하여 마른기침과 인후 건조를 효과적으로 완화할 수 있다고 본다.

영양학적 관점에서 마는 여러가지 비타민과 미네랄 외에도 아밀라아제, 폴리페놀 산화효소 등 건강에 유익한 성분을 함유하고 있다. 따라서 체질이 허약한 사람은 마를 자주 먹을 수 있다. 또한 마는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장건강을 촉진하고 변비를 예방치료할 수 있다.

감자—변비를 예방한다

중의학에서는 감자가 성질이 평이하고 맛이 달며 비장을 건강하게 하고 위를 조화롭게 하며 대변을 잘 통하게 한다고 본다.

영양학적 관점에서 감자는 식이섬유함량이 풍부하여 장건강을 촉진하고 변비를 예방할 수 있다.

고구마—피부를 윤택하게 한다

중의학에서는 고구마가 성질이 평화롭고 맛이 달며 비장, 신장 경락에 들어가 비장을 보하고 기를 보충하며 장을 넓히고 대변을 잘 통하게 한다고 본다.

식이섬유 외에도 고구마는 베타카로틴이 풍부하여 체내에서 비타민 a 로 전환된다. 이 비타민이 부족하면 가을건조증으로 인한 불편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장편소설

림꺽정

홍명희 원작
홍석중 윤색

(전호에서 이음)

다음날 저녁에 림꺽정과 여러 두령들은 짐속에 든 병쟁기를 꺼내들었다.

능통의 부하들이 저녁밥을 든든히 먹고 모여왔다.

그들은 만단의 준비를 갖추고 밤이 깊어지기를 기다렸다.

한밤중이 되였다.

박선달이 사는 가사리동네에 갑자기 병쟁기를 든 사람들이 달려들었다.

동네개들이 요란하게 짖을 때 그들은 벌써 박선달의 집을 들이쳤다.

칼을 손에 든 림꺽정이 한패를 이끌고 사랑에 들어와서 큰사랑, 작은사랑방에 곯아떨어진 량반놈들을 결박하였다.

활을 든 리봉학이 또 한패를 이끌고 안에 들어가서 안방식구들을 꼼짝달싹 못하게 가두어놓았다.

림꺽정이 안팎을 다 뒤졌으나 박선달이란 놈을 찾을수 없었다.

그는 일각문으로 안채를 들여다보며 봉학에게 물었다.

《늙은 주인량반놈이 안에 있나?》

봉학이 일각문앞까지 뛰여나왔다.

《안에는 남자라군 아이들밖에 없소.》

꺽정은 결박당한 량반들앞에 와서 호령했다.

《주인놈은 어디 갔느냐?》

《모릅니다.》

박선달의 맏아들이 대답했다.

《이놈아, 모른다니 그게 될 말이냐?》

꺽정은 칼등으로 그놈의 어깨를 내리쳤다.

《아이쿠.》

《그래두 량반의 종자라구 거짓말을 잘하는구나. 거짓말을 하면 죽일 테다. 바로 대여라.》

《작은집에 가셨나봅니다.》

《작은집이 어디냐?》

《바로 옆집이올시다.》

꺽정은 사람들을 이끌고 옆집으로 뛰여갔다.

첩의 집에 자빠져있던 박선달은 큰집에 화적이 들었다는 소리를 듣고 급히 심복노릇을 하는 하인들을 불러서 한놈은 읍내관가로 띄우고 나머지는 도끼나 몽둥이들을 손에 들려서 큰집에 들여보냈다.

미련한 심복놈들은 박선달의 분부를 받드느라고 무리로 큰집에 몰려들어가다가 바깥마당에서 된벼락을 맞았다.

박선달놈은 진작 심상한 화적이 아닌줄을 알았더라면 요전번 민란이 일어났을 때처럼 도망할수도 있었다.

그러나 이놈은 첩의 집에 두었던 값비싼 재물을 감추느라고 첩과 함께 부산스럽게 돌아치다가 꺽정에게 잡혔다.



박선달은 꺽정의 얼굴을 알아보지 못했으나 꺽정은 그놈의 얼굴을 곧 알아보았다.

박선달이 급한김에 꺽정의 앞에 다가와서 부들부들 떨며 다죽어가는 소리로 말했다.

《우리는 박선달집에 붙어사는 사람입니다.》

꺽정은 늙은 놈의 거짓말을 듣고 껄껄 웃었다. 그는 사람들에게 명령했다.

《이놈을 묶어라! 저년두 묶어라! 집에는 불을 질러라!》

사람들이 달려들어 박선달과 첩년을 묶었다.

앞뒤처마에서 불길이 일기 시작했다.

《년놈을 큰집으루 끌구 가자!》

꺽정은 이렇게 분부하고 앞장에 서서 큰집으로 돌아갔다.

그동안 박선달놈에게 원한이 맺힌 동네작인들이 환성을 지르며 큰집에 모여들고 있었다.

꺽정은 봉학, 천왕동, 곽오주를 데리고 사랑방퇴마루에 걸터앉았다.

동네작인들의 눈앞에서 박선달의 죄행을 따지려고 작정한것이였다.

이때 돌석이 급한 걸음으로 뛰여들어왔다.

그는 들어서자마자 꺽정에게 말했다.

《그동안 박선달놈의 집에서 몇몇이 읍으루 뛰여갔소. 그동안이면 읍내에서 소동이 일어났을텐데 혹시 늦으면 큰일이우. 여기 일은 우리에게 맡기구 어서 가시우.》

꺽정은 일어섰다.

《여기 모인 동네사람들의 의사를 물어서 이놈을 적당히 처리하게.》

그는 천왕동과 곽오주에게 분부하고 봉학과 함께 밖으로 나왔다.

얼마후에 꺽정이 거느린 한패가 동네 한복판을 짓치며 나가는데 또 다른 한패가 동구밖에서 기다리고있다가 그들과 합세하였다.

그들은 읍내쪽을 향하여 달려가다가 일부는 중간에 떨구고 그 나머지는 읍내 턱밑까지 다 와서 어둠속에 자취를 감추었다.

읍내에서 가까운 가사리의 박선달네 집에 화적이 들었다는 소식이 관가에 들어왔을 때 안성군수놈은 등불밑에 혼자 앉아서 뢰물로 받은 금노리개를 들여다보고 있었다.

소식을 듣자 군수놈은 깜짝 놀라서 급히 군사를 일으켰다.

관군 수백명이 삼문앞에 모이자 군수놈은 우선 건장한 군사 삼십명을 뽑아서 옥을 지키게 하였다.

나머지 군사들은 좌우병방에게 주어 가사리로 출동시켰다.

안성의 좌병방과 우병방이 군사들을 거느리고 가사리에 나왔을 때는 벌써 청석골두령들이 그 동네에서 사라진 뒤였다.

박선달의 아흔아홉칸짜리 큰 기와집이 충천하는 불길속에 파묻혀있을뿐 화적들은 그림자도 없었다.

좌우병방은 황급히 군사를 돌려세웠다.

가사리를 습격한것이 청석골사람들이라면 틀림없이 길막봉이 갇혀있는 옥을 노릴것인데 자기들이 군사들을 끌고나왔기 때문에 읍안은 텅 비여있는것이나 다름없었다.

그들이 군사들을 풍우같이 몰고 중간쯤 왔을 때였다.

갑자기 길옆 량쪽에서 함성이 일었다.

앞장에 섰던 우병방은 군사들을 뒤로 물린 다음 좌병방과 서로 의논을 하고 급



히 활을 가진 군사들에게 함성이 들리는 길 량쪽에다가 활질을 하게 하였다.

한동안 화살이 날아가는 소리가 요란하였으나 살이 떨어진 곳에서는 아무런 기척도 없었다.

좌우병방은 건장한 군사 수십명을 골라뽑아서 좌우편 길옆을 수색하라고 명령하였다.

두패가 각각 홰불을 든 군사들을 앞세우고 풀숲으로 들어갔다.

그때 오른쪽 풀숲속에서 별안간 화살이 날아오는데 순식간에 군사들이 련달아 쓰러져서 남은 군사들은 와-하고 도망쳐나왔다.

왼쪽에서는 군사들이 풀숲속으로 깊숙이 들어가도록 아무런 기척도 없더니 갑자기 군사들이 《아이쿠, 지쿠》 하고 뛰여나오는데 그중 서넛은 얼굴에 대꼬챙이가 꽂혔고 또 서넛은 뒤덜미에 쇠꼬챙이가 박혀있었다.

《청석골놈들중에 박가성을 가진 놈이 무슨 줌안에 드는 창을 백발백중으로 맞힌다더니 그놈이 왔네그려.》

좌병방이 겁에 질린 소리로 중얼거렸다.

《그놈 하나만 왔겠나? <돌팔매> 두 오구 <쇠도리깨> 두 오구 <천하명궁> 두 오고 <천하장사> 두 오구 떼서리가 다 왔겠지.》

우병방이 당황한 얼굴로 대답했다.

《우리 안성에 큰 란리가 났네.》

《여기서 지체말구 얼른 읍으로 돌아가세. 》

《얼른 돌아가서 옥이나 지키는게 상책이겠네.》

좌우병방은 읍내로 들어가려고 군사들의 대오를 정돈시켰다.

이때 뒤에서 또 함성이 일어나며 한패가 후진으로 달려들었다.

군사들보다 먼저 도망질을 시작한 좌우병방은 읍가까이 와서야 군사들을 거두어모았다.

가사리로 나갈 때는 군사들이 기세충천하여 수많은 홰불로 길을 밝혔는데 도망질해오는 지금은 모두 홰불을 내던지고 뛰였기때문에 어둠속에서 갈팡질팡하였다.

좌우병방은 가까스로 수습한 군사들을 이끌고 읍으로 향했다.

어둠속에서 마주오던 사람들이 군사들을 보고 새떼처럼 흩어져 달아났다.

한 남자는 달아날 기운도 없는지 펄썩 땅에 주저앉아 군사들에게 제발 목숨만 살려달라고 빌었다.

좌우병방이 그 남자의 얼굴을 들여다보니 뜻밖에도 책방이였다.

《아니, 이게 책방나리 아니십니까? 》

놀란 좌병방이 이렇게 부르짖으며 붙들어일으켰다.

평소에 그처럼 도도하던 량반님이 어떻게나 혼쭐이 빠졌는지 맨 상투바람에 량반의 웃옷도 걸치지 못하고 신발도 신지 못한 맨발이였다.

《아이구, 이게 누군가? 난 꼭 화적들인줄만 알았네.》

책방은 좌병방의 옷섶을 덥석 잡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그들은 책방의 입을 통해 읍에서 벌어진 일을 알게 되였다.

좌우병방이 군사들을 끌고 가사리로 나간 뒤 얼마 안있다가 림꺽정이 한패를 거느리고 관가에 들이닥쳤다.

관가를 지키던 군사들이 막으려고하자 림꺽정은 칼을 들고 혼자 내달아 순식간에 군사 일곱놈을 쓰러뜨렸다.

그러자 다른 군사놈들은 다 달아나고말았다.



림꺽정은 거침없이 관가에 들어가서 마침 뒤담을 넘어 도망치려던 군수놈을 붙잡아 료정내고 관가에 불을 질렀다.

그다음 그는 사람들을 거느리고 옥으로 가서 옥을 깨고 거기에 갇힌 길막봉과 민란주모자들을 빼냈다.

그리고는 남쪽으로 빠져서 어디론가 사라져버렸다.

책방의 이야기를 들은 좌우병방은 급히 서둘러서 군사들을 몰고 림꺽정이 사라졌다는 쪽으로 달리기 시작하였다.

그들은 산상골근처에서 청석골사람들의 뒤를 물었다.

림꺽정은 관군이 뒤쫓아오는것을 깨닫고 사람들을 두패로 갈라서 한패는 곽능통이 옥에서 빼낸 사람들을 보호하여 앞서가게 하고 다른 한패는 자기가 거느리고 관군을 기다렸다.

좌우병방은 겁이 나서 더 다가가지 못하고 활잡이들에게 활만 쏘게 하였다.

림꺽정은 칼을 휘두르며 단신으로 관군에게 달려들었다.

《달려오는 놈을 쏘아라!》

좌병방의 명령을 받은 활잡이들이 달려오는 꺽정을 겨누고 활을 쏘았다.

그러나 꺽정은 거침없이 달려오며 호통을 쳤다.

《이놈들, 죽어봐라!》

좌병방보다 담기있는 우병방이 먼저 창을 꼬나잡으며 소리쳤다.

《모두 함께 달려들어라!》

우병방이하 여러 장교들과 군사들이 창과 칼을 내두르며 꺽정의 앞뒤량옆으로 대들었다.

꺽정은 꼭 나는 범과 같았다.

동에서 번쩍 서쪽으로 내닫고 남에서 번쩍 북쪽으로 뛰였다.

사방에서 나는 《악》 소리중에 간간이 《아이쿠》 소리가 섞여나오는데 그 소리가 들리는 곳에서는 반드시 장교 하나가 자빠지거나 군사 하나가 꺼꾸러졌다.

여러 장교들과 군사들은 슬금슬금 뒤로 물러서며 칼이나 창을 내두르기만 하였다.

우병방 하나만이 꺽정을 노리고 앞으로 나가면서 창끝을 놀렸다.

《이놈이 청석골화적의 괴수 림꺽정이다. 이놈만 잡으면 나라에서 큰 상을 받을수 있으니 어서 함께 달려들어라!》

우병방은 군사들의 사기를 돋구려고 이렇게 소리쳤다.

꺽정은 그 소리를 듣고 코웃음을 쳤다.

《주제넘은 놈같으니라구, 내가 화적이면 량반놈들과 함께 불쌍한 백성들의 등껍질을 벗기는 네놈들은 도대체 무엇이냐?》

꺽정은 말을 마치고 우병방에게 달려들었다.

우병방은 창을 앞으로 꼬나들고 림꺽정은 칼을 우로 추켜들었다.

우병방이 꺽정의 가슴복판을 노리고 창을 내지르니 꺽정은 슬쩍 몸을 틀어 창끝을 한옆으로 흘려버리며 곧 한손으로 창목을 잡아챘다.

우병방의 몸이 엎어지자 칼이 번쩍 목에 떨어졌다.

우병방이 삽시에 죽는것을 보고 좌병방은 슬그머니 논판으로 내려가 도망질을 치기 시작했다.

《좌병방나리가 도망간다.》

어떤 군사가 보고 웨쳤는지 그 소리 한마디에 관군의 대오는 모래사태처럼 무너져 와--- 하고 떼도망을 시작하였다.

꺽정은 도망치는 군사들을 뒤쫓지 않고 한번 껄껄 웃은 다음 돌아서서 뚜벅뚜벅 걸어갔다.



꺽정과 청석골두령들은 달골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안성관가와 박선달의 집을 들이쳤고 옥을 깨쳐 길막봉과 민란주모자들, 막봉의 안해와 그의 장인까지 구해냈다.

가사리의 박선달집부터 들이친것은 막봉과 민란에서 죽은 가사리사람들의 원쑤를 갚는것과 함께 읍내 관군을 가사리로 끌어내자는 꾀였다.

관군이 나올 때는 가만히 두었다가 들어갈 때 앞을 막고 뒤로 들이친것은 관가와 옥에서 림꺽정의 패가 손쉽게 빠질수 있는 시간을 만들자는 꾀였다.

이와 같은 꾀를 낸 사람은 서림이였다.

그는 싸움판에 끼우기가 겁이 나서 아프다는 핑계로 달골 능통의 집에 누워있었다.

서림은 꾀가 맞았는지 틀렸는지 몰라서 고시랑거리며 소식이 들어오기만을 기다렸다.

드디여 떠들썩하며 곽능통이 옥에 갇혔던 사람들을 호위하여 들어왔다.

그다음에 왁자지껄하며 리봉학과 다섯 두령이 달골사람들을 거느리고 들어섰고 뒤미처 림꺽정이 여라문사람을 데리고 들어섰다.

꺽정이 달골에 들어섰을 때는 벌써 능통이가 막봉과 민란주모자들을 따로따로 갈라서 여러 집에 나누어눕힌 뒤끝이였다.

꺽정은 여러 두령들과 함께 막봉이 누워있는 집으로 찾아갔다.

막봉의 우둥퉁하던 얼굴은 살이 쭉 빠져서 불끈 솟은 광대뼈와 더 커진 두눈이 두드러져보였다.

여러 두령들이 막봉의 손도 만져보고 다리도 주물러보며 위로하자 그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다.

얼마후에 꺽정은 여러 두령들을 모아놓고 청석골로 안전하게 빠질 계책을 의논하였다.

그들은 일행을 각기 서너패로 나누어 떠나기로 하였다.

막봉의 장인을 중심으로 하는 한패는 량반의 행차로 꾸며서 떠나기로 하고 리봉학과 서림을 중심으로 하는 한패는 풍수쟁이노릇을 하기로 하고 꺽정은 막봉을 데리고 강원도쪽으로 에돌아서 빠지기로 하였다.

청석골로 빠질 생각을 정한 다음 꺽정이 여러 두령들에게 말했다.

《내가 여러분에게 할 말이 있소. 아무래두 나나 봉학이나 유복이는 이번 왔던 길에 칠장사에 들려서 양주팔선생님을 만나뵙구 떠나야겠소. 내 생각에는 우리 셋이 칠장사에 갈 때 여러 두령들이 함께 가서 선생님께 인사를 드리구 의형제를 맺었으면 좋겠는데 어떻소? 우리가 뜻을 같이하구 량반놈들과 끝까지 싸우자면 친형제보다 더 두터운 의리로 단합되여야 하는데 그러자면 아주 의형제를 뭇구 생사를 같이할 결의를 다지는것이 좋다구 생각하우.》

림꺽정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배돌석이 무릎을 치며 찬성해나섰다.

서림도 림꺽정의 말을 지지해나섰다. 뒤따라 모든 두령들이 다 좋다고 말하는데 유독 곽오주 하나만이 좋다싫다 말이 없었다.

《자네는 왜 말이 없나?》

배돌석이 곽오주에게 물었다.

곽오주는 곧은 성미그대로 서림을 빤히 쳐다보며 대답했다.

《서두령이 형제결의에 끼우면 난 빠지겠소.》

서림은 그 말을 듣고 얼굴을 붉혔다.



그는 청석골에 들어온 첫날부터 자기의 진속을 빤히 들여다보고있는 곽오주를 제일 무서워했다.

서림은 어이없는 웃음을 지으며 중얼거렸다.

《내가 빠질레니 념려마시우.》

서림은 더 앉아있기가 창피해서 먼저 나와 막봉이 누워있는 집으로 갔다.

그는 은근히 속이 꼴렸다.

곽오주가 그런 말을 할 때 응당 다른 두령들이 자기편을 들어줄줄 알았는데 잠자코들 있은것이 괘씸했다.

그는 은근히 결의모둠이 깨여지기를 바랐다.

서림이 방에 들어서니 막봉은 방금 미음을 마시고 누워있었다.

서림은 슬그머니 막봉을 결의모둠에 빠지도록 충동할 생각이 들었다.

그는 막봉의 옆에 펄썩 주저앉으며 말했다.

《오늘밤 여러 두령들이 칠장사로 결의형제를 무으러 간다는데 길두령은 어디 그 몸으로 따라갈수 있겠소? 만일 길두령이 빠지게 되면 곽두령은 모두 형들뿐이구 동생이 하나도 없어서 불뚝거리겠군. 나는 원래 의형제라는걸 그닥 좋지 않게 생각하기때문에 모둠에서 빠질 작정이요.》

서림이 지나가는 소리처럼 이런 말을 하였으나 막봉은 들었는지 먹었는지 잠자코 있었다.

서림이 다시 말을 꺼내려는데 다른 두령들이 방안으로 밀려들어왔다.

여러 두령들은 막봉에게 의형제를 뭇자는 꺽정의 뜻을 말해주었다.

말끝에 배돌석이 막봉에게 물었다.

《자네는 어떻게 할텐가? 자네가 빠지면 안되네. 우리한테 업혀서라두 꼭 가야지.》

막봉은 얼른 대답을 하지 않고 일어나앉고싶다는듯 몸을 움직였다.

돌석과 곽오주가 그를 일으켜 앉혀주었다.

서림은 은근히 속으로 막봉이 가지 않겠다고 말했으면 하는 기대를 가졌다.

막봉은 두팔을 뒤로 짚고 비스듬히 앉으며 무거운 입을 열었다.

《내가 이번에 량반놈들의 손에 죽게 되였다가 여러 형님들의 덕에 살아나가지구 형님들이 결의형제를 뭇는데 빠질수가 있소? 칠장사가 여기서 몇십리쯤 되는지는 모르지만 무릎으루 기여서라두 꼭 갈테요.》

막봉은 말을 맺으며 여러 두령들의 얼굴을 쭉 돌아보았다. 서림이 하나만 시틋해하고 다른 두령들은 너무 좋아서 싱글벙글 웃기까지 하였다.

두령들은 곧 칠장사로 떠날 준비를 하였다.

리봉학은 서림이 하나만을 빼놓고 가기가 미안해서 서림에게 같이 가자고 말하였다

《나야 가서 무얼하우?》

서림은 고개를 가로저으며 이렇게 말은 하면서도 같이 가서 결의모둠에 참가하라는 말이 나오기를 바라는 눈치로 꺽정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러나 꺽정은 그 눈치를 아는지 모르는지 아무 말도 없었다.

이때 길막봉이 입을 열었다.

《서두령은 결의형제가 재미없을것 같아서 빠지기루 했다면서요? 결의모둠에 빠질바에야 같이 가서 무얼하겠소?》

서림은 얼른 손을 배에 가져가면서 말했다.

《나는 배가 아파서 일찍 누워야겠으니 속히들 갔다 오시우.》



이렇게 되여 서림을 빼놓은 청석골의 일곱두령이 칠장사로 떠났다.

제일 앞에는 막봉을 업은 꺽정이 서고 그뒤로 다른 두령들이 일렬로 따라섰다.

삼십여리의 험한 산길을 무거운 막봉을 업고가면서도 꺽정은 땀 한방울 흘리는것 같지 않았다.

일행이 절문앞에 이르자 천왕동이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다.

자다가 뛰여나온 중들은 아닌밤중에 찾아온 꺽정의 일행을 보고 깜짝 놀랐다.

꺽정이 막봉을 내려놓고 중들에게 다가갔다.

《선생님을 뵈오러 왔소. 주무실텐데 죄송스럽긴 하지만 내가 뵈오러 왔다구 선생님께 여쭈어주시우.》

꺽정의 말을 들은 중들은 한동안 잠자코 있다가 조용히 대답하였다.

《스님은 돌아가셨소이다.》

이 말을 들은 꺽정은 놀라와 굳어졌다. 그러다가 더듬거리는 목소리로 겨우 되물었다.

《돌아가시다니? 언제?---》

《사십구일재가 얼마 안 남았소이다.》

꺽정은 뒤에 선 봉학과 유복을 돌아보며 목멘 소리로 부르짖었다.

《선생님이 돌아가셨단다.》

봉학과 유복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리고있었다.

칠장사의 서쪽 산기슭 펑퍼짐한 땅에 소도바가 하나 새로 생겼다.

그 소도바속에 들어있는 한줌의 재는 여든다섯살의 일생을 이 세상 천대속에서 보낸 양주팔이 남긴것이였다.

젊어서는 함흥 고리백정으로서 바른 세상을 만들어보려는 엄청난 꿈을 간직하였고 중년에는 서울 동소문안의 갖바치로서 세상을 바로 잡기 위하여 밤낮없이 뛰여다녔고 말년에는 깨여진 꿈을 집어던지고 칠장사에 들어와 중으로 일생을 마친 불우한 사람의 자취였다.

꺽정을 비롯한 일곱두령은 소도바앞에 찾아갔다.

소도바앞에는 등불이 타오르고 향탁우의 로에서는 향기로운 연기가 피여올랐다.

꺽정과 다섯두령은 소도바앞에 엎드리고 리봉학은 그옆에 꿇어앉아 일곱두령의 성명과 나이를 적은 종이쪽지를 읽었다.

그것을 다 읽은 다음 봉학은 량반놈들과 끝까지 싸울 일곱두령의 결의를 천천히 외웠다.

그것이 끝나자 꺽정으로부터 막봉이까지 한사람씩 소도바앞에 분향을 하고 절을 했다.

뒤이어 동생되는 사람이 형되는 사람에게 절을 하는데 맏형인 꺽정이 여섯동생의 절을 받았고 봉학, 유복, 돌석, 천왕동, 곽오주까지 한사람씩 줄어서 제일 끝의 동생인 막봉이 여러 두령들의 부축을 받으며 꾸벅꾸벅 여섯번 절을 했다.

그들이 결의모둠을 끝냈을 때는 먼동이 터올무렵이였다.

꺽정은 동생들과 함께 양주팔이의 소도바를 다시한번 돌아본 뒤 칠장사를 떠났다.

(다음호에 이음)



BB크림1415



제품생산단위: 조선화장품무역회사

용 량: 13ml

효 능: 해빛속의 자외선을 차폐, 흡수하여 자외선에 의한 피부손상을 막아주며 피부를 외부환경으로부터 격리시켜 여러가지 피부오염인자들이 피부속으로 스며들지 못하게 할뿐아니라 피부가 자연스러운 색을 유지하도록 하여준다.



보건산소공장





